

제433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임시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3월23일(월)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7)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0)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67)
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6)
7.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0)
8.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81)
9.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89)
10.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2)
1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00)
1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6)
15.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7)
16.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0)
17.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인사청문요청안
18.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인사청문회
19.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추가)

**상정된 안건**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2
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7)  
..... 3

|                                                                                            |    |
|--------------------------------------------------------------------------------------------|----|
|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0) .....                            | 3  |
|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67) .....                            | 3  |
| 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 3  |
| 6.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6) .....                                            | 3  |
| 7.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0) .....                                        | 3  |
| 8.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81) .....                           | 3  |
| 9.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89) .....                           | 3  |
| 10.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 3  |
| 1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2) .....                                   | 3  |
| 1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00) .....                                   | 3  |
| 1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 3  |
| 14.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6) .....                                        | 3  |
| 15.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7) .....                                          | 3  |
| 16.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br>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0) ..... | 3  |
| 17.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인사청문요청안 .....                                                     | 8  |
| 18.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인사청문회 .....                                                       | 8  |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 96 |
| 19.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 96 |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여기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원회 위원 개선과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황종우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 중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오늘 자 국회사무처 정기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전보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예나 입법조사관입니다.

다음은 이창현 행정관입니다.

(인사)

우리 위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0시07분)

○위원장 어기구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위원을 서삼석 위원으로 개선하고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위원을 송옥주 위원으로 개선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7)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0)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67)
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6)
7.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0)
8.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81)
9.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89)
10.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2)
1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00)
1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6)
15.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7)
16.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0)

(10시08분)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6항까지 1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조경태 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의 서천호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대리 서천호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서천호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9일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해양수산부 소관 22건의 법률안과 해양경찰청 소관 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3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결을 하였으며,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연안해역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및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연안해역의 출입통제구역을 무단으로 출입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현행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정태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폐기물 수거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하천폐기물의 해양유입방지 및 해양유입 폐기물의 적극적 수거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 무단 사용 선박에 대한 원상회복 및 행정대집행 처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두운영계약 체결 주체를 ‘항만시설운영자등’에서 ‘관리청등’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정태 의원과 김선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국가안전보장 관련 선박 입항처리 규정 마련, 예선·예선업 적용 규정 대상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활동하는 선박으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김승수 의원, 박수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낚시통제구역 지정 재검토 제도 도입, 낚시터업 유효기간 연장 횟수 제한 삭제, 낚시여가지구의 지정 및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낚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항시설의 범위 확대, 어항배후지역의 지정근거 및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 근거 마련, 어항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명확화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어항배후지역의 지정 위치 및 요건 등을 명확하게 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업종별수협 조합원이 그 업종별수협 소유의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법률상 금지되는 어업권 임대차로 보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업종별수협의 원활한 어업권 보장 및 행사를 위해 정치망어업면허 대상에서 업종별수협을 추가하는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벌금액 상한을 상향하려는 것으로 무허가조업의 경우 현행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어업활동의 정지명령 위반 등의 경우 2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정선명령 위반의 경우에는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각각 벌금액 상한을 상향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서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보고한 법률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안 중 수정안과 대안은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등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5항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

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10항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13항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된 법률안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차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직무대행 김성범 존경하는 여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개의 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률안들은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외국어선에 대한 벌금을 대폭 상향하여 불법 어업의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고 우리 어업인과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한편 항만에 무단 방치되어 기름 유출 사고 우려가 큰 장기 미운항 계류 선박에 대해 원상회복명령, 대집행 등 강제처분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등 해양수산부의 여러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조경태 법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해양경찰청 차장 등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희 위원** 인사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법안소위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정말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윤준병 여당 간사님 그리고 야당 간사님, 두 분 모두에게 정말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엄연하게 법안의 논의에 있어서는 본인들의 어떤 개별적인 저기보다도 여야 간사 간의 합의라든지 또 들어온 법안의 선입선출의 원칙에 의해서 논의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농지거래 단절에 따른 어떤 농촌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할 필요성이 급박한 의미에서 농지법에 대한 개정을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 법안심사의 논의를 요구했는데도 변변히 그 논의의 대상에서 빠지고 자기들한테만 유리한, 필요한 법안에 대한 논의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알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제가 듣기로 우리 간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법안소위의 날짜라든지 안건의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논의나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인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또 그렇게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지도부에 정식으로 그 법안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의 필리버스터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들은 정말 맞지 않고 농림법안소위가 어떤 한 특정 개인의 의지나 생각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깊이 인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이만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선입선출 원칙 지켜 주시고 또 간사님들과 상의도 충실히 해 주시고 농지법을 한번 날 잡아서 하루 종일, 끝장을 보든지 해서 빨리 신속히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이만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 중에 일부는 맞고 일부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농지법과 관련된 심의를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소위 안건에 상정해서 하다 보니 시간들이 없어서 오후에 논의하자고 그러면 또 일정이 안 맞아 가지고 못 했던 전례도 두 번이나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의욕하고 현실에서 운영될 때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하지 못했던 전력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소위 일정을 한번 잡아서 그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농지법 41건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그날 전달해서 농지법만 심의하는 이런 일정을 김선교 간사님하고 상의해서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7.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인사청문요청안

#### 18.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인사청문회

(10시22분)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인사청문요청안 및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결한 인사청문회 계획서와 간사 위원들 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먼저 오전에는 황종우 후보자의 선서 후에 모두발언을 듣고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청문회를 속개하여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주질의 5분, 보충질의 7분, 추가질의 3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정책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 각종 현안 및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 의지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청문회에 참석하신 황종우 후보자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후보자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여러 측면에서 검증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국민 전체를 대신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종우 후보자에 대한 주요 약력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하신 황종우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6년 3월 23일

공직후보자 황종우

○위원장 어기구 이어서 황종우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모두발언은 10분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후보자께서

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무위원후보자가 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큰 영예입니다. 하지만 국가와 국민 그리고 해양수산 가족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에서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제 생각과 각오를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엄정하게 평가하실 수 있도록 진솔하고 성실하게 인사청문회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1995년 공직에 입문한 이래 27년여 기간 동안 해양수산 행정에 몸담아 오면서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아쉽고 미흡했던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봉사할 기회를 주신다면 공직 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양강국 실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해양수산부가 직면한 상황이 실로 엄중합니다. 중동지역 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 확보와 함께 해양물류산업을 둘러싼 불확실한 환경으로 기존 에너지 공급망의 재편 필요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밥상을 풍성하게 해 주었던 수산업은 기후변화와 어촌 소멸로 인해 존립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 해양수산 대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 다섯 가지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여 동남권을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행정·사법·금융을 집적화하고 기업·인재·자본을 결합하여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 냄으로써 동남권이 명실상부한 해양수도권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통해 상업운항에 필요한 데이터와 경험을 축적하고 북극항로 활성화에 발맞춰 진해신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 항만이자 첨단 스마트 항만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둘째, AI 발전과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수산과 해운항만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수산 분야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의 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 불필요한 수산업 규제는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근해어선을 중심으로 과도한 어선세력을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고 어선의 대형화·현대화를 통해 어업 생산성을 향상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 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를 통해 우리가 가진 우수한 디지털 역량을 양식산업에 접목하겠습니다.

해운항만 분야에서는 국적선사의 친환경 선박 도입을 지원하고 친환경 연료 공급 인프라

라를 구축하여 탈탄소화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완전 자율운항 선박 핵심 기술 개발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연안·어촌 지역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가 놀거리·볼거리·쉴거리·먹거리를 모두 갖춘 지역관광의 중심으로 거듭나게 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이 연안·어촌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이익 공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춘 스타트업이 연안·어촌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1000억 규모의 비수도권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국가보조항로를 공공위탁 체제로 전환하여 연안·어촌 주민의 교통권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건강하고 안전한 해양·연안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해양수산 현장에 촘촘한 안전체계를 구축하여 인적 과실과 오류까지도 예방하겠습니다. 모든 어선을 대상으로 구멍조끼 착용을 의무화하여 어선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겠습니다.

또한 국민 우려가 큰 해양환경 위해요소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북한 우라늄 폐수에 대해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양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해양폐기물 발생부터 수거·처리까지 전 주기에 걸친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바다를 물려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주권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불법조업 대응원칙을 퇴거에서 나포로 전환하고 벌금도 대폭 상향하겠습니다. 또한 인공위성과 무인항공기를 동원하여 빈틈없는 불법조업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독도, 영해기점 무인도서, 서해 구조물에 대한 해양영토 관리 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우리나라가 유치한 2028년 제4차 유엔 해양총회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외교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해양바이오와 같은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수산물 물가·안전 관리를 비롯한 각종 현안도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시급하고 중차대한 현안으로서 호르무즈 해역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선사·선박과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꼼꼼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선사와 수출입기업 및 어업인을 위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으로 인해 해양수산 정책의 부산 편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그러한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전국 각지의 해양수산 현장을 더 많이 찾아가고 더 자주 만나고 더 깊게 듣겠습니다.

해양수산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에 계신 해양수산 가족분들을 늘 염두에 두고 5극 3특 전략과 연계하여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별 맞춤형 해양수산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생각하는 해양수산 분야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듣게 될 위원장님과 위원

님들의 고견과 충고를 깊이 새기며 정책과 성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종우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주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에는 답변시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후보자께서는 유념하시고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잠깐만요.

자료제출 요구요,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조금 전에 후보자의 모두말씀도 들었습니다만 오늘 청문회가 사실은 국무위원으로서의 전문성은 물론이고 또 후보자의 도덕성·청렴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그런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검증을 위한 필수적인 자료들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냐 그러면 후보자가 공직을 사퇴한 22년 8월부터 새로 후보자가 되기까지 한 3년 7개월간 사이의 재산 변동사항을 보면 예금 파트에서만 무려 8억 3000만 원가량이 증액됐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만 증액된 8억 3000만 원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니깐 후보자가 보내 온 설명은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예금, 봉급 등에서 증가된 부분이라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약 8억 가까운 돈들을 그냥 현찰로 재어 놓고 있다가 다르게 예금을 한다든지 보험에 넣는다든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통은, 대부분 일정한 금액이 보관된 전 계좌가 있고 그 계좌에서 이체가 되는 것이 보통의 방식인데 지금까지 후보자께서는 조금 전 모두말씀과 달리 본인의 사생활을 앞세우면서 답변을 지금 거부하고 계세요, 자료제출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후보자가 내세우는 사생활이 지금 인사청문회의 어떤 검증 권한 위에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국가안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직무상 아주 큰 피해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이 아니라 후보자 개인의 형성돼 있는, 재산 형성과 관련된 계좌를 요구하고 그 돈의 존재 형태를 원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부하는 행태는 정말로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에게 증액된 금액이 어디에 머물다가 나타나게 된 건지에 대한 관련된 계좌 등의 제출을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알겠습니다.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 해양수도 부산을 외치면서 부처 이전까지 강행했지만 정작 부산신항 자동화 터미널 구축과 북항 재개발 2단계 등 핵심 사업들은 장관 부재로 인해서 의사결정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사업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액 추산치를 금일 중으로 특히 3분 발언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어기구** 또 기타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시는 자료를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뭇간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만희 위원**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어기구** 오전 중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더 이상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시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황종우 장관후보자님, 지명된 것 축하드리고요. 반갑습니다.

제 지역이 새만금지역이어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만금신항이 5만 t짜리 2선석이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향후 몇 선석까지 확대 계획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그 부분까지는 확대 아니고 올해 하반기에 잡화 2선석이 준공한다는 내용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8선석입니다.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이명박, 박근혜정부 때 민자로 개발을 하려고 두 번 개발 시도했는데 사업자가 없어서 못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재정 전환해서 개발을 하려고 했다가 재정 부담 때문에 그때 2만 5000t짜리 4선석을 재정 개발하고 상황을 보고 추후에 또 결정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5만 t짜리 2선석이 간 겁니다. 그 5만 t짜리 2선석이 올해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8선석을 어떻게 할 건지, 항만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또 추진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자사업자가 나오고 있는 조건은 아니고 또 현대차를 포함해서 그쪽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재정사업으로 부두 개발을 좀 더 확대해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앞으로 한 4선석 정도는 재정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나머지 4선석은 또 상황을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후보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만금항은 서해안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자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재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장관으로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지금 ‘민자가 어렵다면’이라고 가정을 하셨는데 민자가 어려워요, 현재. 그리고 8선석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또 8선석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당초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항만기본계획을 빨리 정비해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이원택 위원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항만배후부지가 있어요. 그게 사실 문제인 정부 때 항만배후부지를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왜냐하면 항만 2선석이 준공되기 때문에 배후부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배후부지를 개발해야 되는데 사실 재정으로 개발하려고 그랬는데 윤석열 정부 내내 그것을 민자로 한번 해 보겠다 어쩌겠다 이러면서 시간 끌고 아무것도 안 된 거거든요.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도 민자로 어떻게 해 보겠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배후부지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시지요, PA가 없는 데는 정부가 재정으로 개발한 것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이원택 위원 항만공사가 없는 데는 정부가 직접 개발했고 항만공사가 있는 데는 항만공사에서 배후부지를 개발한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이원택 위원 이 원칙을 다 알면서도 지금 질질 끌어왔어요. 윤석열 4년 내내 제가 주장해 왔던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더 이상 끌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배후단지에 대해서 지금 아마 준설토 투기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알고 있고 그게 만료가 되는 게 28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전이라도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재정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재정 당국하고도 협의를 계속해 왔는데, 원래 문제인 정부 때는 재정 당국에서 재정으로 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었는데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재정에 의해서도 좋지만 민자를 한번 해 보자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민자가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항만국에서 그렇게 계속 고집을 피운 사례고 그랬는데 이걸 장관후보자가 바로 검토해서 방향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장관이 된다면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래요.

저희 전라북도가 김 생산량이 어느 정도 생산되는지는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이원택 위원 연도별로 다르겠지만 전국 2위 정도 양을 생산하거나 3위 정도의 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 생산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산업진흥지구라든가 김 가공시설에 대한 지원이 사실 제일 약해요. 제일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실 김산업에 대해서 전북도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체계가 너무 약하다. 이걸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지금 아마 기재부가 김산업진흥지구 지정도 당분간 예산사업으로 종료됐다고 하기는 하지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진흥지구 지정을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북지역의 김 가공시설 확대에 대해서도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호 위원 후보자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란 사태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19일째 봉쇄돼 있는데 이로 인해서 소위 원유에 대한 가격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서천호 위원 지난 3월 12일 날 정부에서 유류비 억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 속에 포함이 안 된 게 있는데 알고 계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천호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이 부분에……

지금 해수부의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어민들이 국회에 와서 집회를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어업용 면세유가 최고가격제, 유류비 억제정책에 포함이 안 됐어요. 자동차용 경유라든지 보통휘발유, 실내용 등유 등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어업용 면세유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민들이 아주 분노를 넘어서서 이제 표출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국회에 와서 그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후보자님 입장 어떠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유가 상승으로 해운기업 또 수출입기업뿐만 아니라 어업인들도 굉장히 많은 부담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유가 상승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은 정부가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최고가격제에 포함해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지난 22년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당시에 유가보조금 약 480억을 우리 어민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알고 있습니다.

○서천호 위원 이번 유가 상승률을 보면 이 480억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정부보조금이나 또 제도적인 차원에서, 예산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물론 부임하시는 게 전제로 깔려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부분을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서천호 위원 그런데 해상풍력 개발예정지가 많이 있습니다.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전기사업법으로 여러 가지 발전허가를 받은 분들이 계시고 이리데 그런 분들과의 여러 가지 이익공유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조업구역 축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천호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풍력 개발예정지 94%가 어업활동보호구역과 중첩이 됩니다. 그렇지요? 이걸 인식을 하고 계실 것으로 내가 보는데, 방금 답변 속에.

또 하나는 해상풍력 사업 중에 외국 자본이 60%가 넘어요. 우리 바다를, 외국 자본에게 우리 해양주권을 넘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어업권을 팔아서 어민들의 생활권을 뒤흔치고 외국 자본에게 우리 해양주권을 그냥 송두리째 주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 부분 문제인식을 심각하게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실제로 현장에서 어업인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충분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소연할 곳도 없다, 어민들이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장관후보자에게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후보자님, 바다 염도가 몇 퍼센트 정도 되면 바다의 생태계에 큰 지장이 없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정확한 수치가 지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서천호 위원** 대충 몇 퍼센트 정도라고 알고 계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3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서천호 위원** 맞습니다. 보통 평균치가 33.6% 정도 되면 바다 생태계에 큰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작년 7월 집중호우 때 약 2%까지 떨어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죄송합니다.

오전에 위원님들한테 한 번씩 기회를 주기 위해서 딱 5분으로 정했거든요.

보충질의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충북 진천·증평·음성 임호선 위원입니다.

저희는 충북이라 바다가 없는 것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알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모두말씀 죽 들어 보니까 아쉬운 게 내수면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이것은 제가 별도로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시급하고 중차대한 현안으로 호르무즈 해역 상황을 모니터링한다고 하셨는데 현황은 파악하셨나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지금 거기 우리 국민 몇 명이 승선해 있는지는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호르무즈 해협 내측으로 26척에 179명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제가 보내 준 자료하고 좀 다르네요. 144명이구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그것은 저희 선박에 탔던 선원들만 포함한 거고요. 외국 국적 선박에 타 있는 우리 선원까지 포함하면……

○**임호선 위원** 외국 국적도 있더라고요. 37명?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179명입니다.

○**임호선 위원** 여기에 오다 보니까 해양대학생들 지금 의원회관에 많이 와 있던데 여기 해양대 실습생 10명도 확인하셨나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그다음에 해양수산연수원, 총 12명이 있었는데……

○**임호선 위원** 아, 12명으로.

지금 여기 연락체계 유지하는 것 외에 각 부처별로 임무와 역할이 다를 텐데 해수부에서 연락 외에 대응방안,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어떤 임무와 역할을 맡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생필품이 떨어지지 않고 유류가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급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호선 위원** 그래서……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아울러서 위기상황이 된다면 선사를 통해서 하선 계획 이런 부분도 같이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임호선 위원** 제가 꼼꼼하게 그 정도 인식하고 계신지 한번 여쭙봤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이 부분을 임용되시면 바로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존경하는 서천호 위원님께서 어민 면세유 질의를 주셨는데 저도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그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 448억 원을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지금 추경 작업하고 계시지요, 실무 작업?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것 꼼꼼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시급하게, 지금 전체 25조니까. 우리 해수부에서 어민들 소외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 주셔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그중 우선순위에서 아마 유가연동보조금이 다뤄질 텐데 지난번에 다룬 내용을 보니까 전쟁 발발이 2월 달에 됐는데 6월 달까지의 유가 급등분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추경이 국회에서 다 해 가지고, 편성돼 가지고 지급될 때까지 그 해당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미 사용한 고가 면세유에 대해서 일정 사후정산 방식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아시지요? 이걸 도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내용까지 설계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어업인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리고 추경예산안이 편성되면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리고 다음 주에 이게 언론에서 크게 문제될 걸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 태안 기름유출 사건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임호선 위원** 허베이조합하고 서해안연합회에서 그때 당시 삼성중공업에서 보상금으로 내왔던 기부금 3067억 원을 기탁해서 여기서 관리하는 내용 혹시 들여다보셨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따로 들은 적은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들은 적만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임호선 위원** 이것 다음 주쯤이면 국민적인 관심사가 될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11개 시군에 그 일정 부분 얼마, 몇 억 몇 억 해 가지고 원래 다 배분금까지 나눠져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그런데 1개 조합하고 서해안연합회에서 각각 2024억 원, 1043억 원 해 가지고 이 사업비를, 기부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기탁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엉망입니다. 이것 엉망이에요. 이 감사권이 해수부에 있는데 이것 제가 볼 때는 이대로 뒀다가는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냥 소송 중이라는 것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과연 이런 식으로 정작 우리 어민들에게 전혀 닿지 않는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금 관리는 잘못됐다.

장관님이 되시면 바로 이 부분 꼼꼼하게 당장 오늘 청문회 끝나면 들어가셔서…… 이 부분 이번 국감 때 제가 다시 다룰 겁니다. 아시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기금 운용의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후보자님,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그 취지는 정확히 아시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런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만희 위원** 간단하게요,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제가 2022년 7월 이후에 저하고 배우자가 번 급여 그다음에 퇴직금 이걸 다 합해 보니까 10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자소득까지 합하면 대충 11억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 부분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 저축 부분이 6억 600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자료 요청을 받고 저희가 챙겨 보려고 했는데 그 돈의……

○**이만희 위원** 제가 시간은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한 3년 7개월 정도의 시간 속에서 아까 후보자 말씀대로만 하면 11억 이상의 수입이 있었고 또 그중에 6억 6000이 남았다고 그러면 한 5억 정도를 생활비로 썼다고 생각이 되는데……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4억 4000만 원……

○이만희 위원 4억 정도가…… 생활비 자체도 그렇게나 많이 쓰이는가 하는 그런 것도 의심이 있을뿐더러 또 한 가지는 그전에 공직에 계실 때도 후보자와 배우자는 각각 같이 직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3년 7개월이란 짧은 시간 사이에 어떻게 전체 자기가 27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벌었던 수입하고 같은 금액을 벌 수 있는가 그 부분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후보자가 말씀하시는 사생활 내세우셔 가지고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이 자료들은 반드시 제출해 주셔서 국민적인 어떤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찾아보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하여튼 오전 중에 그 막대한 돈들이 어디서 생겨서, 어디에 있다가 거기서 갑자기 나타나게 된 건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어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거기에 관련해서 다음 달…… 지금부터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원유 자체가 거의 한 달 이상 중단되고 있다는 사실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이만희 위원 지금 그러면 해수부가 구체적으로 거기에 선원의 안전을 챙기고 선박의 이상 유무를, 호르무즈 해협 내에 있는, 페르시아만에 있는 그 어선을 챙기는 것 이외에 무엇을 또 하고 있습니까?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에너지 수급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자부와 협의를 해서 산자부가 어디서 에너지를 구해 올 것인가라는 장소를 정하게 되면 저희 해수부는 국가필수선박을 동원해서 그 에너지를 수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지금 전쟁 상황 속에서…… 조금 전에 중요한 말씀을, 제가 물어볼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 국가필수선대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건 아마 후보자가 해수부 기조실장으로 있으면서 이걸 착안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국가적으로 필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송의 위기 상황이더라도 반드시 동원되어서 우리 물자 수송을 하도록 하는 선박이고요. 그 선박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국가의 경제와 안보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으로 운항되어야 될 전략적인 민간 상선 집단을 국가필수선대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이만희 위원 그러면 이 선대가 그 위험한 상황을, 그 위험한 지역을 통과하면서 지원 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한 가지가 뭡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조금 질문을 이해를 못……

○이만희 위원 보험료겠지요, 보험료.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이만희 위원 보험료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호르무

즈 해협 봉쇄로 인해서 민간 선사들 또 선박들이 가지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한 가지가 선박 보험 자체가 취소됐습니다. 아시지요?

지난 3월 3일 자로 영국 로이드 보험협회에서 전쟁으로 인한 전쟁 위험 지역의 선포에 따라서 보험 계약 취소됐습니다. 그렇지요?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그러면 선박에 대한 보험이 얼마나 됩니까, 다시 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네 배 가까이 는다고 들었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듭니다. 많게는 50배 가까이 늘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전략선대를 만들면서 반드시 고려돼야 될 수는 바로 이런 보험 관련된 사항들이 필수적으로 동의돼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지금부터라도 이 지적에 대해서는, 필수선대 운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지적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자료 꼭 주시고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현 위원** 전남 여수시갑 주철현 위원입니다.

해수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료를 살펴보니까 해수부에서 주요 보직 두루 거치셨고 또 대통령비서실에서도 근무를 해서 아마 정통 관료 출신으로서 여러 가지 장점이 많으신 분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편 생각해 보게 되면 내부 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기존 관료들의 여러 가지 기득권이라든지 정책의 틀을 과감히 바꿀 수 있느냐 또 이런 의문까지 드는 게 좀 있어요. 각오를 새롭게 해서 이제는 선출직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대통령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의 뜻을 직접 대변한다 이런 마음으로 근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생각이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제가 선출직 시장과 재선 국회의원으로 계속 농해수위에 있었는데 해수부 직원들이 주권자인 국민을 대하는 마음이 반드시 선출직과 같지는 않아요. 모든 것이 자기들 편의 위주더라고요, 기득권 지키고 자기들 이익 위주고.

청사 문제 같은 경우도 다수 수요자들이 있는 곳으로 옮겨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근무하기 좋은 도심에 있기를 원하는 게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그렇게들 다 지금 직원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해수부 내의 고위공직자들이 비호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기득권 관료의 벽을 과감히 철폐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사실상 해양수산부의 문제점이 특히 해양 운송과 관련해서 부산 중심, 부울경 중심의 기득권, 한국 해저 중심의 기득권이 고착화돼 있었다 이런 걱정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해수부 자체가 부산으로 이전이 되고 또 부산 출신이 해수부장관에 임명됐고 또 이번에도 새롭게 지명이 되면서 걱정이 더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라 옛날 과거의 투 포트 수출입 1위 관문인 여수·광양항 측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부산 중심의 해운정책이 펼쳐졌었는데 이제 얼마나 더 기울 것이냐 이런 걱정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북극항로 관련해서도 지금 그런 걱정이 많은데, 직전 장관인 전재수 장관께서는 북극항로 최초에는 부산 중심, 부산·울산·경남 중심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게 아니다라고 저희들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해서 이제는 ‘항로별·부두별·선종별 특성을 살린 북극항로 배후항만 개발하겠다, 특성에 따라’ 이렇게 말을 바꿨는데 오늘 보고드린 것 보니까 동남해안권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동남권을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돼 있던데 동남권이 아닌 여수·광양항이라든지 인천·평택항은 제외되는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그렇지 않습니다.

○주철현 위원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많은 분들이 부산 중심 쏠림을 걱정하고 계신데 신임 해수부장관이 와 가지고 앞으로 부산·울산·경남 중심의 해운정책을 펼치겠다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북극항로 관련해서 전재수 장관이 그만둔 다음에 바로 북극항로지원단이라는 것이 발족이 됐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알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북극항로추진본부가 발족이 됐는데 여기에 3개 지자체가 참여를 했어요. 부산·울산·경남만 참여했더라고요. 전남은 왜 빠진 거예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철현 위원 왜 빠졌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처음 당초에는 아마 그 추진단을 만들면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자체를 먼저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극항로 문제는 단순히 그 지역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북극항로 경제권역이라고 해서 여수·광양·제주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경제권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또 파견 공무원이 있다면 저희들이 받아서 같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아니, 받아서…… 이게 모양이 그렇잖아요. 모양 자체가 중요한 건데,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울산·경남만 참여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전남도하고 인천도 불러서 참여를 시켜야지요. 모양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아시겠지만 2013년 현대글로비스가 나프타를 싣고 우스트루가항에서 여수·광양으로 들어왔잖아요. 국내 선박의 북극항로 최초 이용 성공 사례입니다. 그리고 북극항로 이용에 컨테이너는 대부분 없어요. 대부분 자원화물이잖아요. 액상화물, 벌크화물 이런 것들인데 그렇다면 울산과 여수·광양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유념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래서 이런 치우침을 좀 없애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가 수산 관련인데 수산은 전남이 전국 수산인의 40%,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건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장관 지명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께서서는 27년 해양수산부에서 근무하고 공직 경험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해양·항만 분야는 전문성이 있으신 것 같고 수산정책과장으로 3개월 근무한 것 말고는 수산 경력 관련한 이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산 분야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와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그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고 앞으로 수산인들 많이 만나서 많이 듣고 또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지난 시기부터 수산업이 해수부에서 조금 소외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으면서 수산2차관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전재수 장관께서는 적극 동의하고 추진하겠다 이런 의사도 있었는데 지금 특별히 추진되는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혹시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2차관 신설은 저희 부가 원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은 아니어서……

○전종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관님 뜻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저희도 충분히 다른 부처도 공감할 수 있도록 기능 강화를 하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전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 12일 미국 무역대표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입 금지하겠다고, 무역법 제301조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해서 60개국을 조사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들었습니다.

○전종덕 위원 작년 4월에 태평양전 천일염 문제로 인도보류명령이 발령돼 가지고 항구에 즉시 억류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강제노동 제품이 수입 중단된 최초의 사례여서 대단히 충격을 줬는데 아직도 해제가 안 돼 있어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들, 외국인 어업 근로자들이 해수부 같은 경우 6725명이나 배정이 됐는데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노동착취나 인권침해 사례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3월 4일 날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자로 해남군하고 제주시를 지정을 했더라고요, 해수부가. 그 똑같은 날 고흥 굴양식장에서 임금 착취하고 강제노동 문제가 알려졌습니다.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그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전종덕 위원 좀 보고받으시고요. 필리핀 국적 노동자에게 하루 12시간 넘게 일을 시켜 놓고 첫 월급을 23만 원을 준 거예요. 그리고 굴양식장에서 일하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유자농장까지 가서 일을 시켰던 겁니다. 이것 현대판 노예 노동이지요.

태평양 천일염 강제노동 문제도 상당히 사회적 파장이 컸었는데 여전히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노동과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

사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외국인도 똑같이 인권이 보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된다면 더 신경 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당장 수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전남 영광에 향화도항이라고 있는데요 국가어항 사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21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 이후에 22년도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해서 24년도에 전략영향평가 협의 완료를 했고 영광·무안·함평 같은 인근 지역의 주민설명회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정된 지 5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진척이 없습니다. 제가 2년 연속 국감을 통해서 적기 추진을 요청했고 그 당시 장관께서도 적기 추진을 약속을 했습니다. 어민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기 추진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추진 내용이 없습니다, 진척이 없기 때문에. 조속한 추진으로 이 사업이 제때 제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직접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하반기에 바로 할 거라고 제가 따로 직원분들에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전종덕 위원** 향화도항뿐만 아니라 국가어항 사업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고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꼭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광양항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2029년 자동화 부두 개장을 목표로 지금 자동하역장비 설치와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부두의 성공적 운영과 선박 대형화 추세에 따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 수심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겠지만 광양항은 항로 수심이 16m예요. 그래서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안정적으로 입출항을 하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적정 수심인 17m 확보해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쟁력이 확보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전면항로를 증심 준설할 때, 제4차 항만기본계획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때 좀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지금 사전타당성 검토 끝났고 이제 예타 들어가는데 확실하게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4차 항만기본계획에 꼭 포함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광양

항 중심 사업에 또 항로 폭 확대를 위해서, 꼭 좀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금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의 문금주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일단 지명 축하드리고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습시다만 해수부는 해양정책과 수산정책을 동시에 담당하는 부처입니다. 그럼에도 최근의 해수부 관련 대형 정책을 보면 대부분이 해운·해양 산업 중심인 걸로 보입니다. 반면 수산정책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려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요. 정책 방향뿐만 아니라 해수부의 주요 고위직들 경력을 봐도 아무래도 수산계열이 소외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후보자 또한 25년 이상의 공직생활 관련해서 수산정책 관련한 경력은 고작 3개월에 불과하더라고요. 장관의 자리는 특정 분야 전문가라기보다는 전체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라는 점을 장관후보자께서 명심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부 수산업계에서도 후보자의 그간 경력으로 비추어 보건대 수산정책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은 단순히 산업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균형과도 상당히 맞물려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수산정책을 해운·해양 또 항만 이런 부분 정책과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지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해양수산부가 통합해양행정을 위해서 구축이 됐던 조직입니다. 어떤 분야든지 소외되거나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해양·수산·항만 모든 부분이 균형 있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오히려 제가 수산 쪽에 많이 없었기 때문에 더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적으로도 균형이 다 맞춰질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좀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그렇게 노력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시다만 수산 전문 2차관을 신설하는 문제도 포함이 되고 또 하나는 지금 해수부에 여러 산하기관들이 있는데 해운·해양 분야, 항만 분야는 부산에 집적을 시키더라도 수산 분야 관련기관들은, 아시다시피 전남이 수산업의 1번지인 건 아시잖아요. 그러면 수산 분야, 어촌·어업 분야는 전남으로 기관을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신달지 또 지금 해양진흥공사와 같은, 비슷한 수산진흥공사를 설립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수산진흥공사가 설립된다면 이런 부분은 전남으로 기관 위치 문제를 고려를 한달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저는 후보자께서 강한 의지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지는 있으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저희 공공기관들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그 기관의 특성이나 또 지역의 전략산업과의 연계 그다음에 이전의 시너지효과 등을 다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예를 들면 지금 서울에 있는 어촌어항공단 같은 경우도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전남으로 이전을 시킨달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보여 주셔야 우리 수산업계가 걱정을 안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알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리고 여러 분들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지금 어업용 면세유 폭등이 예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추경 당연히 고려를 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전월 대비 8.5%가 이미 상승이 돼 있는데 이 상승한 것도 아직 중동 상황, 중동의 영향이 반영이 안 된 내용이라라고요. 4월에는 보통 어업용 면세유 공급량이 엄청,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또 4월에 최대 70% 가까이 폭등이 예상되는데, 추경 때 당연히 예산 반영이 돼야 되지만 추가로 고려해야 할 게 지원율도 현재 50%인데 70%로 상향해야 될달지 리터당 지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한액도 지금 현재 112원인데 183원 정도로 고려를 해야 될달지, 아까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이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이미 손해 본 내용에 대한 그런 부분도 보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대책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추경에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태 위원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지명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혹시 임명이 되시면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출신이셔서 특별히 어떤 결격이 있다기보다는 공직생활 동안에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 오신 것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관예우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자료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도는 보셨지요, 후보자님?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박준태 위원 2023년 6월부터 1년 동안 수협중앙회 수산업발전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그렇습니다.

○박준태 위원 1년 동안 받은 금액이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회의를 한 여섯 차례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맞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맞습니다.

○박준태 위원 그러면 회의 한 번 할 때마다 한 500만 원 정도씩 자문료를 받게 되는

셈인데, 통상적인 전문가 자문료라고 하면 한 30만~50만 원 정도 책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적절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저렇게만 보면 확실히 과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박준태 위원 예, 말씀 주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2023년 6월에 수협중앙회가 수산업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당시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이 국민적으로 굉장히 우려가 컸던 사안이고 그래서 그 대응 하기 위해서 만들면서, 제가 처음에 듣기로는 1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모일 거고 대외활동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1년 계약으로 자문계약을,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도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박준태 위원 좋습니다. 회의 이외에도 여러 활동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신 거라는 거잖아요. 제가 그 입장은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그러면 전화 자문이나 아니면 다른 회의 참석이나 아니면 외부의 활동을 추가적으로 하신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전화로도……

○박준태 위원 어떤 것이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주제를 처음에 후쿠시마만 할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후쿠시마 부분이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시장이 관리가 되고 해서 다른 주제를 다루면서 그 주제와 관련해서는 회의를 하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박준태 위원 좋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 주시지요.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자문하는 형식이, 민간에서도 최소한 전화 자문을 했다 아니면 어떤 컨설팅을 했다고 하면 그 근거를 남기게 됩니다. 비용 청구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렇겠지요. 인보이스 할 때 참조되는 자료들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준공적인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사안에 대해서 지금 이런 기록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당시에 여러 활동을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그렇게 과다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입장인 것 같은데 국민들 눈에 보기에 이것은 과한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고위공직에 계신 분이 아니었다면 이런 예우를 하지는 않았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강도 하셨더라고요. 특강료도 금액이 큼니다.

다음 장 보여 주세요.

HMM에서 150만 원·200만 원, 수협에서 250만 원, 1회 특강에 이 정도 비용은 과한 겁니다. 인정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좀 과하다고 인정합니다.

○박준태 위원 수산업발전자문위원회에서 자문하신 것 관련해서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 받으셨지요. 아닌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그게 아니고 취업제한 문제로 받았습니다.

○박준태 위원 그렇지요? 공직자윤리법에 수협중앙회 직책을 말으면 이게 취업심사대상이 되는데 그것 신고 안 해서 가지고 과태료받은 것 맞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맞습니다.

○박준태 위원 그렇지요? 공직을 거의 30년 가까이 하셨는데 이게 취업승인대상이라는 것을 모르셨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당시에 제가 2023년 6월에 자문위원으로 수협에 갈 때의 경우에는 수협이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고시되어 있지 않았습시다. 그리고 제가 2024년 5월에 자문위원 해촉이 됐는데요. 2025년 1월에 수협중앙회가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고시가 되었고 그 이후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고 법원에서 부과했습니다.

○박준태 위원 좋습니다.

다음 장도 보여 주세요.

제가 후보자님 주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취업할 때 당시에 이게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고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소급 적용된 거다, 그래서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시는 걸로 이해했는데요.

다음 장 보여 주세요.

이게 지금 인사혁신처 해석은 전혀 달라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그 당시에 취업대상기관으로 고시된 것은 아니었지만 고시 기간, 고시가 되기 이전 기간에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것으로 보아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도 이게 신고 대상이 된다고 해석은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확인을 못 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되어 있는 기관이 2만 6000개나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해석으로 해서 다 찾아내서 본인이 그것을 신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법령에서 조금 미비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판단은 들고 있습니다.

○박준태 위원 오후에 계속 여쭙보지요.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삼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황종우 후보자님,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물도 한 모금씩 드시면서 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서삼석 위원 모두말씀을 보니까 아까 동료 위원께서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4페이지 특정 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으로 키우겠다, 9페이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으로 인해서 정책 편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걸로 알고 있다—이것 후보자가 하신 말씀이에요—10페이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그러한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전국 각지의

해양수산 현장을 더 많이 찾아가고 더 자주 만나고 더 깊게 듣겠다라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정리했는데 뭔가 이게 맥락이 맞지가 않아요.

어느 특정 지역은 엄청 부각시켜서 발전시키겠다 해 놓고 여타 나머지 지역에서는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아쉽다, 이렇게 해 가지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는 균형발전에 부합하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러워서 드린 말씀이니까 후보자의 속마음은 그것이 아닐 거라고 제가 믿고 또 이런 글을 써 주신 해수부 공무원들도 꼭 그런 생각은 아닐 것이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서삼석 위원** 호르무즈 해협에 트럼프 최후통첩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엄청난 현실 앞에서 세계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에너지를 100%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가 대혼란 속에 빠져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민들입니다. 동의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서삼석 위원** 다행히 서천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후보자께서 최고가격제에 면세유 꼭 포함시키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또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게 되면 당장 한 달 후에 아니, 내일이라도 어업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현장 어민들의 목소리라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 또 유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여객선 운항이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게 보면 섬 주민들의 이동권이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이 되고 고통을 받게 될 것인가라는 것은 이미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대안을 마련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꼭 해야 돼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서삼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2014년도부터 여객선 공영제가 논의되기 시작해 가지고 13년간 공전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다 몰라도 황종우 후보자님 장관 되시면 이것 황 장관 손에서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이거 하나만큼은 황 장관이 정말 완벽하게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러면 13년간의 공전 상태를 황종우 후보자가 장관이 되시면 중단하겠습니다, 끝냈다 그것에 대한 약속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 마련도 의원실로 보고해 주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서삼석 위원 이거 꼭 해야 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역대 장관들 아무도 안 했어. 그러니까 한번 이걸 해결하는 장관으로 우리 해운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장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용 위원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장관님, 해수부가 세종시로 몇 년도에 이전했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2012년 말에 이전했습니다.

○정희용 위원 2012년 말에. 얼마나 걸렸습니까, 계획부터 이전이 완료되는 데까지?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몇 년이라는 건 제가 정확하게……

○정희용 위원 한참 걸렸겠지요, 세종시 이야기 나온 지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니까. 그런데 이번에 해수부 부산 이전은 얼마 만에 이전이 완료됐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한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정희용 위원 6개월 만에 됐지요. 그런데 그 당시 세종 이전을 경험해 봤던 입장에서 6개월 만의 부산 이전이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대통령님께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지원을 해 주셔서 직원들이 잘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장관이 되신다면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그걸 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잘 했으니까 잘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직의 수장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직원들은 불편함이 있어도 말도 못 하고 그럴 거지 않습니까, 정권 초기라서? 그래도 경험 많은 해수부 출신 선배가 장관으로 오신다는데 그 부분을 믿고 기대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잘될 거다 이렇게 막연하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정희용 위원 미국·이란 전쟁 관련해 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배들 지금 나가 있지요? 지금 못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적선 26척?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정희용 위원 해수부 제출 자료 보니까 ‘선박별로 식료품, 선용품이 현재 2~5주분으로 필수물품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HMM 회원연합 노조 위원장이 언론에 인터뷰한 걸 보면 한 달치 식료품은 확보하고 있는데 현지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이 이야기 들어 보셨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뒷부분은 못 들었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래서 10kg당 15달러였던 쌀이 이미 30달러를 넘었다 그리고 고기도 평균 2배, 물값은 9배가량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심할 수가 없는 거지요, 비용이 너무 오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정희용 위원 이것 파악하셨어야지요, 장관후보자님께서.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정희용 위원 챙겨 보셔야 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래서 의원실에서 해수부에 호르무즈 해협 인근 우리 선박 또 정박국 별로 주요 식료품 물가상승률 자료를 요청하니까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무책임한 자세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전쟁 상황에 나가 있는 우리 선박 또 우리 선원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각별히 챙기셔야 됩니다, 다각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실시간 정보 공유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현재 내측 해협에서 선원 승하선 교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선 요구는 해양대 실습생 2명에 불과해서 선원 동요는 없다라고 해수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 다른 해양대 실습생 10명 그리고 일부 선원들도 하선 의사를 자유롭게 못 밝히고 있다, 왜냐하면 취업 연계 문제도 있고 또 인사상 불이익 문제도 있고 해서 본인 스스로 의사를 밝히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들어 봤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선사와 계속 협의를 하면서……

○정희용 위원 그래서 이거는 협의해서, 이게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달라. 그리고 아니면 선사하고 협의할 게 아니라 각 선원하고 채널을 개설해서 해수부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 주십시오. 선사에서 이게 불이익 같까 봐 말을 못 하고 있다는데 선사하고 협의하고 있다 그러면……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선사, 학부모, 학교하고 다 협의를 했고요. 실습생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결정을 못 한 부분이 있었는데……

○정희용 위원 직접 해수부에서 청취할 수 있는 루트를 개설하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거의 다 합의를 해서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다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리고 장관후보자 지명되고 나서, 선박 선원을 송환할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심각해지면 빨리 송환을 해 와야 되는데 그러면 외교 채널 가동해 가지고 하겠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외교 부하고 어떤 협력 매뉴얼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우리 재외국민 보호 매뉴얼에 따라서 아주 위기 상

황에서 길이 쉽지 않을 때는 그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다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선박 위에 있다가나 우리 선원들은 특수한 사정이 있잖아요, 이렇게 땅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해수부 입장에서는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매뉴얼을 별도로 외교부하고 미리 좀 챙겨 봐야 되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하선 계획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경기 화성갑의 송옥주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리겠습니다.

해수부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모두발언하실 때 보니까 상당히 엄중한 시기다라고 하는데 엄중한 시기에 지명도 되시고 또 임명이 되시면 활동을 하실 텐데, 특별히 장관이 되신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이나 생각이 있으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가장 중요한 건 호르무즈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엄중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되면 한 달이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게 장기화에 대한 어떤 걱정도 많기도 하고 넘어가면 4월에 상당한 위기가 닥칠 거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많습니다. 해수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이나 판단이나 그런 게 있나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면서 계속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또 선사 선박과 계속 통신을 하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선사와의 하선 계획까지 다 촘촘히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지금 계류되어 있는 그런 선원과 선박에 대한 부분들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현재까지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해운업계의 피해 대응과 관련된 부분들을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도 아시지만 이 봉쇄로 인해서 해운 물동량이 감소를 하고 있고요. 운임이라든지 보험료가 오르고 있고요. 해운에 대한 안전 문제 등이 지금 수반되고 있습니다. 해운업계의 비용 부담과 수출입 차질 등이 확대되고 있어서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현재 해수부에는 이거에 대한 대책반이 지금 가동돼서 잘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그렇습니다.

○송옥주 위원 매일매일 상시적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특별하게 유의하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저희 부 내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산업부하고 협의체

를 구성을 해서 수출입 기업들에 대한 지원 부분도 같이 챙기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최근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집계된 중동 관련 중소기업의 피해·애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운송 차질이 68%, 물류비 상승이 37%, 계약 취소와 보류가 34%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대책도 잘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해상운임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하고 중국 구간의 초대형 유조선 운임이 전쟁 전보다 3배가 올랐고요. 또 LNG 운반선은 1년에 전기 용선료의 2.4배가 오르고 있습니다.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얼마 전에 보도를 봤더니 일본은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 대한 부분들을 협의 중いだ라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되는지, 어떤 진척 사항이 있는지 혹시 말씀 주실 수 있으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러면 이 업무는 해수부 업무가 아니어서 그러신 건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아무래도 외교적인 사안이 더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이게 국민들의 관심도 있고 우려사항도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은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혹시라도 대충 예측을 하거나 그럴 상황은 없으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협의할 때 저희들 같이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저희가 해수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봤더니 대응방안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체항로 마련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봤는데요. 이 대체항로 마련은 운항가능성뿐만 아니라 비용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회 운항을 할 때 또 비용이 엄청 많이 상승을 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혹시 대체항로 마련과 관련된 부분들은 해수부 업무가 아닌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에너지를 어디서 구할 거냐 하는 부분까지는 산업부가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선박 투입은 저희 부처가 협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러면 이 대체항로 마련과 관련된 부분들은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인 거고 해수부에서는 별도로 의견을 내거나 추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협조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 국가필수선대를 지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우리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가장 먼저 선결적으로 하고 최우선으로 할 부분들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책임감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해운업계뿐만 아니라 어업계에 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으니까 꼼꼼히 잘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실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지명 축하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먼저 당부드릴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는 받으셨지요, 인청 준비하시면서?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필요한 부분마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농해수위 오면서부터 해수부 관련해서 몇 가지 관심을 가지고 진행한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동해안 조업금지구역 설정과 관련된 것 이것 시행령 지금 규제심사 단계에 있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아직 법제처에 안 넘어가고 그 상태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이것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규제심사 절차상 이렇게 입법예고·공포까지 시간이 소요돼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작년에도 제가 2월 달에 이런 얘기 드렸거든요. 강원도 연안의 대게 조업 연중 금지 사례를 보면 이것은 굉장히 빠르게 입법예고가 되었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3개월도 채 안 걸렸어요.

이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동해안 조업금지구역이 규제심사 단계다, 법적 처리 절차가 이러이러하다라는 얘기로 해서 더 이상 이게 더 미루어지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감척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감척지원금이 올해 2월 말이지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3월 1일부터 어업인 감척지원금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업인들한테는 과세 금액이 많이 줄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자료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 문제가 뭐냐 하면 가산세입니다. 가산세가요, 자료 보시면 굉장히 알뜰하게 가산세를 꼼꼼하게 붙였어요.

첫 번째가 무기장 가산세입니다. 소득세법 81조의5에 해당된다면서 기장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 물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국세기본법 47조의4가 적용된다면서 미납일수의 0.02%를 가산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무려 7900만 원이 청구됐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과소신고가산세인데요. 매입지원금은 신고하고 폐업지원금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그야말로 알뜰 없이 국세기본법 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까지 적용이 되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산세가 엄청나게 부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싶어서 해당 어업인이 국세청에 질의서를 보냈더니, 이 어업인이 이렇게 보냈대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감척지원금 기타소득 과세 현황을 요청했는데 국세청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이 내려왔어요. 여기 보면 그 밑에 국세청 답변 2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선 감척사업 관련 폐업지원금을 수령한 인원 및 총금액에 대한 정보를 공개청구 하였으나 해당 자료는 해수부 관할 자료이므로 정보 제공이 불가능하고 감척사업 관련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정보 제공이 불가능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사실상 그동안 감척지원금에 대해서 비과세 관행이 국세청에서도 시행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하면서 꼼꼼하게 가산세까지 부과를 합니다.

현장에 다녀 보시면 이 문제에 관해서 어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큼니다. 이 문제 어떻게, 좀 책임감 가지고 해소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국세청하고 적극 협의해서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감척에 협조한 겁니다, 어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그전에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서 세수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걸 조정하면서 사업소득으로 분류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늦게 냈으니까, 기장 정리하지 않았으니까 가산세를 붙이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행정 처사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2차 질의 때는 제가 해운산업과 관련돼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병 간사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황종우 후보자님, 해수부장관 지명 축하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감사합니다.

○**윤준병 위원** 그동안 해수부에서 성장을 하셨기 때문에 해수부에 대한 업무는 누구보다도 많이 파악하고 계시고 또 미래 비전도 나름대로 잘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해수부를 어떤 자세와 원칙으로 이끌어 가실 계획이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저는 한 27년 정도 해양수산부 쪽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하면서 늘 생각했던 것이 우리나라가 삼면의 바다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국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으로 보답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했고,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자 합니다.

○**윤준병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사청문이니만큼 도덕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검증도 필요한데 제가 사실은 후보자 지명이 됐다고 그래서 예전에 모셨던 조승환 위원님께 황종우 후보자에 대한 평을 여쭙봤어요, 어떠냐고. 그랬더니 ‘가장 흠이 없는 제대로 된 인사를 추천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그것으로 인사청문회 검증은 끝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인사청문회 할 때 도덕성 검증의 기준인 위장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이런 것들이 기준인데 저희 의원실에서 챙겨 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없어서 이제는 정책적으로만 잘하면 좋겠다, 특히 그동안 성장하면서 쌓았던 여러 가지 경륜들을 잘 발휘해서 해수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해양정책·수산정책을 잘 구현해 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지적들이 있었던데 아까 수협중앙회가 취업심사 대상기관인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간과해서 과태료 부과된 점에 대해서 해명이 있었어요.

저도 이 부분이 언론에 나와서 좀 점검을 해 봤는데 2019년에 법이 개정돼서 실제 열거는 안 했지만…… 원래는 예시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시가 안 되어 있지만 포괄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기관은 간주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쟁점이 되었던 것 같은데 2019년에 개정되면서 수협이 명시적으로 고시되지 않았던 사항 또 2019년부터 후보자가 수협에 취업할 때까지 그리고 전임자들도 사실은 신고도 않고 이렇게 처리됐던 점 또 해양수산부 자체도 감사원 감사받을 때까지 수협이 대상기관이었음을 몰랐던 점 또 후보자가 확인한다고 하면 공직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PETI인데, 소위 공직윤리시스템에 등재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확인해도 수협중앙회가 등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 이런 점을 보면 사실은 후보자의 과실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이유야 여하튼 감사원에서 과태료 부과 통지가 오고 그 내용을 보고 실제 과태료를 납부한 점은 오히려 그런 조그마한 과실이라도 성실히 인지하고 수행하려고 했던 점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체를 높이 평가해요.

그다음에 또 수협중앙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월 3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도 이것은 자문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고정 수당이기 때문에 헛수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후보자 입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소명하고자 한 내용과 거의 마찬가지로 다 소명을 해 주셔서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하나 저도 마음에 걸렸던 부분은 어찌하였건 제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자문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교 간사님 마지막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후보자님, 군복무는 여기에 일반행정 9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현역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보충병이었습니다.

○**김선교 위원** 보충역이요? 그때 일반행정도 900이 있나 보지요, 방위도?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900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리고 제가 이 청문회 중에 여러 청문회 해 봤지만 채무가 없는 후보자는 후보자님밖에 없어요. 예금만 잔뜩 있고 어디에 또 부동산으로 아파트만 있고 땅이 한 평도 없고……

어디다 감춰 놓은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런데 왜 아파트만 한 채 있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세종시에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원래 부산이 연고 아니에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부산이 연고입니다.

○김선교 위원 그쪽에도 땅 숨겨 놓은 것 없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전혀 없습니다.

○김선교 위원 후보자님, 제가 모두말씀을 보고 또 얼마 전에 후보자로 내정되고 기자와의 브리핑할 적에 보면 꼭 부울경만 생각해서 장관 되신 것 같아, 후보자로 되신 것 같아. 그래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그렇지 않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런데 이 모두말씀 보고 기자회견 보면 서해안·동해안·내수면 조금도 언급이 없어요. 부울경 장관 되려고 된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앞으로 장관이 되면 전국을 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다음번에 혹시나 장관으로 내정이 되면 인사말씀 다시 한번 만들어서 가져오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장관을 시켜 주고……

○김선교 위원 취임하면.

전임 장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24년 5월 인사청문회 당시에 부산시장 출마를 위한 스펙 쌓기용 장관직 수행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시장 출마 전혀 의사가 없다, 장관직에만 아주 전념을 하겠다 수차례 확인한 바 있어요. 그러나 2026년 지방선거 시한에 맞춘 이번 사태는 사실상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정치적 먹튀 아닙니까?

후보자는 전임 장관의 이러한 행보가 부처의 정책 신뢰도에 어떠한 타격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후보자님 말씀해 보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전임 장관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선교 위원 아니, 부산시장 죽어도 안 나가겠다, 나는 이 일에만 전념하겠다 했는데 사퇴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제가 평가를 하기는 안 맞는 일인 것 같습니다.

○김선교 위원 곤란하지요?

그리고 또 전임 장관이 사퇴 직전까지 뉴욕에서 2028년 UNOC 컨퍼런스 유치활동을 벌였어요. 장관이 직접 뿌린 씨앗을 거두기도 전에 물러난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해양정책의 연속성을 어떻게 후보자가 증명할 것입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UNOC는 2028년에 열리는데요. 올해부터 준비를 착실히 해서……

○김선교 위원 착실히 어떻게, 구체적인 보완책 좀 한번…… 소신을 밝혀 줘 봐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지금 특별법도 마련하고 있고 또 총리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구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하나하나, 올해 연말에 이행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그전까지 모든 조치를 해서 저희들이 장소도 선정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해수부가 부산 임시청사로 이전한 지 불과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전임 장관이 사퇴했습니다. 조직 전체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사기 양양 또 사기 저하, 행정 공백이 불 보듯 뻔해요, 지금 현재.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앞으로 어떻게 쟁겨 나갈 것인지 한번 로드맵을 말씀해 보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대로 내려가서 직원들 한 분 한 분 다 만나면서 애로사항이 뭔지 청취하고 풀어 가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다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정말 해수부 부산으로 이전하고 제일 걱정하는 것이 서해안, 동해안, 내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거에 전혀,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이 하나도 없어요. 그 보완책을 만약에 장관으로 되면 다시 한번 취임 업무보고에 잘 적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가 모두 마무리됐는데요.

조승환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조승환 위원** 오후에 시간 다 주신다면서요.

○**위원장 어기구** 후배라고 봐주는 겁니까?

○**조승환 위원** 아니, 오후에 시간 다 주신다고……

○**위원장 어기구** 오후에 다 하신다고요?

○**조승환 위원** 할까요? 식사시간 앞두고……

○**위원장 어기구** 아닙니다. 오후에 하십시오.

정오까지 위원님들 몇 분이 질의를 안 해 주셔서 가지고 시간이 좀 남는데 제가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 몇 가지, 저도 궁금한 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장관후보자님,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나라 선박 26척이 묶여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여기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선원들이 총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179명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우리 국적선에 타고 있는 선원과 그다음에 외국적선에 타고 있는 선원까지 합해서 179명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합해서 179명.

국적선이 몇 명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146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146명이요?

제가 선원노련에서 방금 받았는데요. 국적선이 144명 그다음에 외국선에 42명 해서 186명이 있다는 거예요. 선원노련보다도 해수부가 정보력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 잘 챙겨 가지고…… 선원들의 안전 확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잘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 지적들이 있었는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대형선사뿐만 아니라 배가 하나, 두 척 있는 중소선사들도 발이 묶여 있어요. 이분들은 더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험료가 최대 5배까지 오르고 있고 선내 생활용수, 청수라고 그러지요. 그다음에 식료품 이런 가격들이 다 두세 배 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사들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라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 전쟁 추경 아니겠습니까? 이번 추경 때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잘 추경에 담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만희 위원님께서 아까 국가필수선대 지적을 하셨잖아요. 호르무즈 봉쇄 상태 보면서 바닷길이 막히면 국가경제에 엄청난 테미지를 주고 있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느끼신 것 같아요. 맞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위원장 어기구 우리나라 지금 필수선대 지금 몇 척 운영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제가 기억하기로는 88척 정도가 국가필수선대로 되어 있는……

○위원장 어기구 88척이지요. 이게 지금 도입된 지가 한 몇 년 됐지요? 한 20년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한 번 동원된 적 있습니까, 이 88척?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계속 훈련은 했지만 동원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지상훈련 같은 걸 해 봤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그렇습니다. 훈련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매년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위원장 어기구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비상대비훈련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도 확인 좀 해보시고요.

그런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육해공 다음으로 해운이 중요하다. 해운이 제4군이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합니다. 따라서 해운이 곧 안보다. 이번에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이 우리나라도 유사시에 핵심 에너지와 전략물자를 안정적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서는 전략상선대 도입이 매우 필요하다.

지금 미국이나 일본, 호주 이런 데는 전력상선대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는 거 잘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우리나라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전략상선대 구축?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지금까지는 국가필수선대를 계속 유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략상선대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우리나라 연구기관이나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전력상선대 2040년까지 최소 200척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조선업과 연관 산업에도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어서 국가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관님 되시면 전략상선대 도입 잘 검토해 보실 의향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 보면서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이 문제는 예산뿐만이 아니라 산업 국방 외교, 범부처 과제입니다. 이런 부처들 장관들과 함께 잘 상의해서 가지고 전략상선대 잘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이상으로 12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오찬을 위해서 정회했다가 14시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어기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미애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뉴스 검색을 해 보니까 트럼프가 이란에다가 48시간 최후 통첩을 냈는데 이스라엘이 그새를 못 참고 테헤란에 대한 공격에 들어갔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 있는 선사도 문제이지만 실제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면 국내 전력이나 가스·원유 공급에 심각한, 그러니까 공급 차질이 우려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전쟁이 장기화되고 나면 당장에 가스·LNG 공급에 문제가 있을 텐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해수부에서는 따로 해수부의 역할이나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저희는 선박 확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업부나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여러 가지 협조를 요청하게 되면 에너지 공급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대체지를……

○**임미애 위원** 배가 필요하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대체지로 배를 보내는 게 있고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 관련해서 중소기업들 부분들에는 수출입에 여러 가지 차질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선박을 매칭을 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선박을 확보시켜 주는 그런 일들을 저희는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이게 아무래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대책을 준비해 달라,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는 선사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만 이후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 대책 마련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모두 말씀 자료집에 보면 5페이지에 이런 얘기 있어요. ‘해운항만 분야에서는 국적 선사의 친환경 선박 도입을 지원하고 친환경 연료 공급 인프라를 구축해서 탈탄소화를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잠깐 자료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게 잘 안 나오는데, 지금 IMO에서 23년 7월에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설정했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임미애 위원 그래서 국제해운 온실가스를 50년경에 또는 그것과 근접한 시기에 순배출량 제로를 달성해야 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의 하나인데요.

자료화면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잘 보입니다.

○임미애 위원 저기가 안 나와 가지고……

이게요 저희가 클락슨 리서치라고 영국 글로벌 조선·해운 시장 전문기관에서 확인한 글로벌 친환경 선박 증가 추이 데이터인데요. 왼쪽의 항목은 전체 주문받은 선박 중에서 친환경 배가 차지하는 비중이고요 오른쪽 표는 26년 1월 말 기준으로 친환경 선박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26년 1월 말 기준 보면 47.1%예요. 앞으로 바다에 나올 새로운 배 2척 중의 하나는 친환경 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발주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발주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해수부에 국내 친환경 선박 자료를 요청했더니 단순히 그냥 척 수로만, 그러니까 128척이 친환경 선박으로 보급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국제기준에 맞춰서 보면 톤수로 계산을 하는데, 내지는 TEU로 계산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톤수나 TEU가 아니라 척 수로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리고 다른 자료 하나만 보여 주시겠습니까?

이게 24년 8월 기준으로 글로벌 친환경 선박 발주 상위 10개 선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라고 할 수 있는 HMM의 경우는 여기 들어가지는 않아요. 앞으로 해운업에서 탄소중립 대응이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장관후보자께서는 앞으로 대형선사들의 친환경 선박과 관련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이야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먼저 그 리포트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선박을 척 수로도 따지고 톤수로도 따집니다. 최근에 너무 소형 선박들이 먼저 친환경 선박이 많이 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척 수하고 톤수를 같이 많이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HMM이 아마 10위 안에 못 든 부분은 지금 대체연료를 어떤 것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규제가 아직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그래서 LNG로 갈 것인지 암모니아로 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아마 진중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직 발주를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고 한 1~2년 정도 안에 어느 정도 방향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바로 아마 많은 발주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조 발주와 관련해서 신조 지원금하고 정책금융 등을 통해서 일단은 선사들의 친환경 선박 발주를 계속 돕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미애 위원 지금 그 예산이 어느 정도가 되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지금은 한 280억~300억 이 정도 되는 규모인데요 아마 조금 더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해진공 이런 쪽을 통해서 아마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선박 전환할 때 보조금이 몇 프로 정도인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큰 선박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지금 국제시장에서 실제로 대형 선박들의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국내에서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는 비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형 선박 위주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후에 IMO가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실제로 해운·물류 업계에서 경쟁력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텐데 이것 좀 미리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현안에만 쫓아다니면 사실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래에 대한 대응들을 미리미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가능할까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정책자금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친환경 선박이 신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임미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 후보자님, 제가 내수면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충북 의원인 것은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알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바다가 없는 충북에, 여야를 통틀어서 저 혼자입니다. 그러면 제가 내수면어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요.

내수면어업 컨트롤타워는 해수부라고 봐야 되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해수부입니다.

○임호선 위원 얼마 전에, 지난주에 제가 5국 3특 간담회를 하는데 충북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훌륭하시더만요,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하고 우리 도내에 양식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내수면 어업 관계자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처음이래요. 해수부에서 직접 이렇게 정책관께서 오셔서 가지고 아주 이 간담회 자체가 의미가 있었어요.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 하면 지금 장관님께서도 사실은 준비하시면서 내수면 제

대로 못 들여다보셨잖아요. 이제 좀 들여다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임호선 위원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예를 한두 가지 들어 볼게요.

지금 영농형 태양광 논의를 하고 있는데 양식장에 태양광이 설치될 수 있다면 양식장 관리에 되게 유용하대요. 예를 들어 재난·재해 대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관리에도, 예컨대 지금 이상기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께서는 그런 데까지를 생각하시면서 희망을 하시는데 저도 지난번에 1회독 했는데 영농형 태양광에 이 생각 못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양식장 하시는 분들이 태양광을 희망하실 수 있겠구나 이것도……

어차피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논에 물을 대 가지고 벼를 키우면 벼농사이고 고기를 잡아서 키우면 고기 농사잖아요. 그런데 제가 법도 개정해 가지고 다시 12년 지나면 메우고 하는 것 법 개정해 냈거든요. 의결됐어요. 그래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농민이 8년 이상 경영을 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데 양식장은 25%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충북에 어선이 몇 척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충북은 잘 모르겠고 내수면은 8000척 정도 되는 걸로 지난번에……

○임호선 위원 그런데 우리 충북에 449척의 어선이 있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임호선 위원 그런데 뭐냐 하면 보험 가입이 안 돼요. 보험에서 들어주지를 않아요. 물론 피해를 따지면 바닷배와 같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마찬가지로 거지요.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데도 들어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아실 겁니다. 친환경 사료를 먹이는데 바닷고기하고 민물고기하고 친환경 사료 먹는 양이 같아요. 자료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원금은 한 톨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협이 있는 바닷가 근처는 그나마 수협에서 농협에서 농민지원사업을 펼치듯이 어민 지원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충북은 수협이 없다 보니까 또 사각지대예요. 바다마트도 하나 없어요. 물론 바다마트의 경영 수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어민들이나 도민들이나 소외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구석구석이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책의 사각지대였다.

그리고 국가어항 지정돼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륙에 국가어항을 지정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드리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대청댐이나 대청호나 충주호 같은 경우는 바다의 호수라고 불릴 정도로 충북에서는 피해의식이 엄청납니다. 사실상 그랬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정작 정부에서는 그간 역대, 그리고 지금 현재 충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고려나 배려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청풍호라고 부르는데 충주호의, 제천 쪽에 있는 청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가어항 지정 요청을 드려 냈거든요.

그러니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까닭은 구석구석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자 꼬리 떼시고 장관님 임명되시면 내수면에 대해서 그렇게 국장님께서 1차 모니터는 하셨지만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꼼꼼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관심을 갖고 챙겨 보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잘 좀 챙겨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은 농협에 대해서는 되게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수협이라고 다를 것 없다고 생각해요.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농협이나 혹은 수협을 통해서 그간에 부담 지워 온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럴수록 투명하고 사실은 더 경영이 올바르게 가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농협 개혁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수협이라고 다를까 들여다보면 사실은 개혁해야 될 부분들 많고요. 아마 후보자님도 수협 사정 잘 아실 겁니다, 거기서 자문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대표적으로 통계 하나만 말씀드리면 부당대출, 횡령 적발 현황을 최근 4년 동안 들여다보니까 2022년도에 3억 4900만 원에서 9억 그다음에 24년도에 10억, 작년에 57억 이게 제대로 질차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감사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얘기겠지요. 감사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돼 왔는지, 특히 위원장 같은 경우 어 뻘었는지를 제가 다 받아서 검토해 봤어요. 사실은 PPT도 다 마련해 왔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수협에 대한 해수부의 감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1년에 몇 군데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정확하게 숫자는……

○**임호선 위원** 관심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임호선 위원** 가지시라는 뜻입니다.

거의 70% 정도가 감사를 안 받고 있어요. 해수부 출범 이후에 감사 한번 제대로, 외부 감사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수협에 대한 이런 감독 기능, 감사 기능 이런 부분들 구조적으로 손을 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현 위원** 후보자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주철현 위원** 후보자님의 여러 가지 약력들이 다 훌륭하시고 그렇기는 한데 딱 보니까 수산 분야를 담당하신 경력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전남은 전국 수산인들의 한 40% 가까이 살고 계시고요. 38.4%가 지금 전남에 살고 계시고 어업생산량은 톤수로만 치면 거의 한 6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산업은 전남이 전국의 거의 한 오륙십 % 차지하니까 중심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해수부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양운송은 당연히 부산 중심 동의합니다, 항만도 마찬가지고. 수산은 전남이 중심이고. 해양자원도 보시게 되면, 해양자원 여러 가지가 많습지만 결국은 근래에 들어서는 해상풍력일 거예요. 해상풍력도 허가 난 양을 보게 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남이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분야가 있다면 해양레저관광일 텐데, 보니까 후보자께서는 해수부 해양레저과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 21대 때 제가 시장을 해 본 경험으로 정말로 필요성이 있어서 해양레저관광진흥법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과연 레저관광법을 만들어서 복합해양레저관광진흥지구를 지금 3개 선정하기는 했는데 그것 말고도 해수부 차원에서 이 법이 만들어졌으면 전체 관광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해양레저관광과 관련돼서 무언가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웃기는 것은 해양레저관광과장이 저쪽 문광부에서 오신 분이예요. 그분이 제대로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상호 직제 교환해서 그렇게 갖다 놓은 것 같은데, 문광부는 모든 관광은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인데 거기서 오신 분이, 컴백하실 분이 해양레저관광과장 오셔서 제대로 일하겠습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을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조직생리상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레저관광도, 물론 부산도 있지만 부산은 그것보다는 그렇고 여수를 중심으로 한 전남이 또 중심이에요. 보시게 되면 해양 운송·항만 빼놓고 나머지 수산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레저관광 이게 다 전남 중심이거든요. 그렇다면 해수부에서, 지금 통합해서 전남 광주특별시가 됐습시다라는 특별히 이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2차관 하자, 안 되면 수산청도 만들어 떼어서 전남에 주자 이런 여러 가지 제안을 했던 것인데…… 지금처럼 보시면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접근성만 더 나빠지고 부산 중심만 강화되는 거지요.

제 말에 공감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전남 쪽에 더 많은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특히 해양수산이 문제인데요. 기후온난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꾸 잡는 어업이 지금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르는 어업으로 갈 수밖에 없고 기르는 어업도, 패류 어업 같은 것은 바다에서 할 수밖에 없지만 가두리 같은 어류양식 이런 것은 이제는 기후변화로 바다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육상으로 다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육상에서는 기르는 어업과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해수 공급하고 온도 맞추는 이런 겁니다.

○**주철현 위원** 맞습니다.

해수는 바닷가에 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에너지 비용입니다. 난방비·냉방비 들어야 되는데요. 요즘은 여름철이 워낙 덥기 때문에 냉방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냉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이것이 기르는 어업의 핵심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해수부가 아직도 콘셉트를 못 잡고 있어요. 다른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결국은 기르는 어업은 냉난방비이고 스마트 어업, 스마트 농업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내가 보기에 에너지 비용인데 에너지 비용을 어떻게 절약할 것인지, 기왕에 있는 열들을

냉배수·온배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특별히 관심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운송과 관련해서 지금 해수부는 국제운송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유를 비롯한 여러 가지를 저희가 해상, 해양운송을 통해서 수입하고 수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운송이 중요한데 또 섬이 많은 전남에서, 전국에서 가장 섬이 많은 우리 전남 지역으로서는 섬 주민들의 교통권, 이게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주철현 위원 육상, 육지에 사는 분들은 길 내 주고 다 해 주는데 섬 사람들은 국가에서 그러지를 못해요. 책임지고 100% 국가에서 대중교통으로 공영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그러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부 보조항로만 책임지고 운영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처박아 두고 있는 형편이고, 그걸 지자체에서 할 수 없이 선출직 단체장들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돈을 보태서 보조금 줘서 겨우 운행하고 이런 형편이거든요.

앞에서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이랑 여러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전남의 가장 큰 민원이 그런 것들이에요. 전남에 유인도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혹시? 전국에 480개 유인도가 있는데요, 현재 연륙·연도 된 섬은 103개밖에 안 됩니다. 20% 연륙·연도 돼 있고 80%가 지금 배로 다니거든요. 그래서 섬 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서 대중교통법으로 규제가 돼서 해수부가 대중교통, 섬 관련 운송은 책임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주철현 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책임지셔야지요. 그런데 마치 남의 일처럼 그냥 예산이 없다는 핑계 대고 먼 산 쳐다보고 계세요. 지금도 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육상교통 준공영제 하듯이 민간인들 시키기, 계속하던 사람들을 하게 하되 적자는 국가에서 보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지자체에 100% 맡기지 말고 그러면 균분해서 보조를 좀 해 주든지 그렇게라도 해야지, 인허가권은 다 갖고 계시면서 돈 대는 것은 지자체 보고 대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차라리 권한을, 지자체에다가 인허가권을 그냥 주든지. 인허가권 갖고 있으려면 100% 재정보조 책임지십시오. 그게 여객선 공영제의 헌법 원칙이기도 하고 우리 대통령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그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이번에 지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에 보게 되면 섬 주민 물류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 조항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운송 지원……

1분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승환 위원님 질의시간인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주질의 5분을 사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번에 12분 드리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죄송합니다.

○서삼석 위원 그런다고 다 하시겠어요? 한 1분 하시겠지요.

○위원장 어기구 간사 간 합의 사항입니다.

**○조승환 위원**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이 후보자가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직접 화법으로 말씀드려서 ‘그 친구 부동산 투기할 친구도 아니고 공직 생활하면서 정말 착실하게 공직 생활만 했기 때문에 도덕성 관점에서 볼 게 없을 겁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우리 후보자 지명,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또 해수부 출신이 장관에 임명되게 되고, 뭐 지역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부산 출신, 부산 후배가 장관에 임명돼서 저도 무척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조금 길게 하는 거는 괜찮겠지요?

그런데 후보자님, 내가 이렇게 보면서, 이 양반이 공직을 그만두면서, 사실 제가 장관 시절에 우리 후보자가 기획관리실장을 끝으로 해서 공직을 그만뒀습니다. 참 마음 아프게도 생각하고 그랬는데 1급 공직자라는 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내가 공직에 돌아오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나 보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시다.

**○조승환 위원** 그게 좀 문제여서, 다시 공직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과거 공무원 시절의 마음가짐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그런 의미에서 공직 이후, 그러니까 공무원 퇴직 이후에 대해서 조금 짚고는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해사센터지요? KMC의 국제위원장……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해사협력센터입니다.

**○조승환 위원** 해사협력센터. 해사협력센터의 그 역할…… 역할이라기보다도 이게 공공성이 있는 기관입니까, 없는 기관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공공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재단법인이고 IMO 관련기관들이 같이 협력의 구심점으로 만든 기관입니다.

**○조승환 위원** 그러니까. 공공성이 있는 기관으로 그러면 통상적인, 급여나 이런 부분들은 다 통상적인 공공기관장 수준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조승환 위원** 그렇다면 처신은 공공기관장 수준의 도덕성과 규범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걸 갖다가 제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적 시각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항상 공직자들은 생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한국해사협력센터가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장으로서 어떤 제한되는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됐었던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장 같으면 농협중앙회에 가서 월 250만 원씩 거의 상근에 준하는…… 상근은 아니지요. 계속 상시 자문하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공공기관장 같으면? 그리고 공공기관장 같으면 200만 원짜리 강연료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 생각이나 할 수 있나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승환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각별히 다시 공직에 들어오는 입장에서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서, 충분히 뭐 유감 표명했습니다마는 사과하고 공직에 들어

오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먹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그냥 제가 예금 관련해서 이렇게 쪽 들여다봤는데 2010년도에 4500만 원 예금에서 2억 1000이 돼요. 그건 보니까 아마 부모님들 재산등록이 제외에서 포함되면서 부모님 재산이 들어와서 예금이 증가된 걸로 제가 그냥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2억 1000이 3억 8000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2년 동안 해외 근무했으니깐 또 열심히 돈을 저축을 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갑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그 부분은 집을 매각해 가지고 조금 올랐던 부분입니다.

○조승환 위원 올랐고……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그렇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부분도 또 공직 퇴직 후로 지금 귀결이 안 될 수가 없는데 공무원 퇴직 재산신고 때 예금이 9억 9000이 신고가 되는데 지금 이번 청문회 하면서 18억 1600이 신고가 돼요. 이게 거의 8억 2000 정도가 지금 증가가 됐는데 저도 공무원 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 명퇴수당이라든지 퇴직수당이 한 2억 정도 들어가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아무리 맛벌이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국민적 시각에서 6억 예금이 증가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하나도 정말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와 제 급여 그다음에 제가 퇴직금이 총 합해서 2억 8600이었습니 다. 그리고 제가 한 7억 2000 정도의 수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 아내가 2억 9000만 원 정도의 수입에 예금이자가 한 5000만~7000만 원 정도가 돼서 저희 부부가 11억 조금 넘게 수입이 있었고 그중에 6억 6000만 원을 저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이 취직을 하면서 2년 4개월 동안 늘어난 돈이 한 1억 사오천이 됐던 것 같습니다.

○조승환 위원 아니, 그런데 본인 수입이 7억 2000이었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7억 2000이었습니다.

○조승환 위원 2년 동안?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퇴직금하고 급여하고 7억 2000이 좀 넘을 겁니다. 그렇 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것도 역시 국민 시각에서는 잘 맞지는 않다. 퇴직금이 제가 보기에 는 1억 6700이 명퇴수당이고 퇴직수당이 7200인가……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제가 2억 5000을 공무원 퇴직하면서 받았고요. 해사협 력센터에서 퇴직하면서 3600만 원을 받아서 2억 8000만 원 정도가 퇴직금이었고, 그다음 에 급여가 4억 3000만 원에다가 말씀하신 수협 1년간 자문위원이 3000만 원……

○조승환 위원 그러니까 급여가 4억 3000, 기타소득까지 포함해서 4억 3000이라는 거지 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아닙니다. 3년간 1억 4000, 1억 4000, 1억 5000 이렇게 받았습니 다.

○조승환 위원 그러면 총수입이 11억이었기 때문에 저축액이 늘어났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그렇습니다.

○조승환 위원 대단히 아껴서 생활하셨다라는 해석은 가능합니다마는 이게 국민적인 시각으로 보면 명쾌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과거 공무원 생활 할 때 마음으로 돌아가서 가지고…… 지금 아마 손해가 많을 거예요. 지금 명예금도 게워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본인 개인적 입장에 서는 금전적인 손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공직에 다시 들어오신 만큼 과거 공직에 근무하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사익보다는 국가적 이익과 또 바쁜 나랏일에 좀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유념하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이제 정책적인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수부가 해야 되는 가장 큰 현안이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지금 가장 큰 현안은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우리 선박들의 선원, 선박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제일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러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해양수도권 육성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는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수산업 같은 경우에 어가 수도 많이 줄었고 또 연근해 어업 같은 경우에 생산량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승환 위원 해양수도권 이야기하셔서 그냥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겁니까, 따로 가는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저희는 일단 조금이라도 더 빨리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런데 분명하게 전 전재수 장관께서 대정부질문에서 이야기하셨던 것 알고 계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말씀 들었습니다.

○조승환 위원 네 번째,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이 대통령 공약이다. 오늘 문대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주철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문금주 위원 문금주입니다!

○조승환 위원 죄송합니다. 문금주 위원님 죄송합니다.

문금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한데, 엄연히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이 들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이 들어 있고 이것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과는 별개로 가 줘야 되는 부분이라는 인식을,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동의합니다.

○조승환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역구 이야기 잘 안 합니다마는 이것만은 해야 되겠다는, 공공기관 이전을 하면……

지금 해양수산을 클러스터화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정부의 정책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조승환 위원 그러면 현재 해양수산 클러스터가 어디 있는가는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영도 쪽에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동삼동 클러스터로 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공간적으로 가능하다면 그쪽도……

○조승환 위원 뭐 공간적으로는 빈 땅 충분히 많이 있고 지정만 해 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다음에 해양수산부 기능 강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해수부장관 후보자께서 의지가 어떤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기능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조선 기능하고 2차관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위원님께서도 IMO 쪽 일을 많이 해 주셨고 또 발전하는 데 많이 기여해 주셨는데 사실 IMO에 가면 조선과 해운이 함께 다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밀접한 2개의 산업이기 때문에 동떨어져서 움직이는 것은 아무래도 비효율이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선박 개발이나 실증 부분이 따로따로 부처에서 움직이는 것도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 한 부처에서 일관성 있게 또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수부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같이 통합해서 저희가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보면서 기능 강화도 하고 또 통합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하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산자부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해수부 조선 기능 이전에 관해서 어떻게 답했는지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들었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런 식의 논리라면, IT나 소부장이나 이런 것이 다 산업이라고 그러면 전부 산업부로 다 가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논리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2차관 문제, 해양·조선 부분의 기능 강화 문제 이 부분에 관해서도 비록 정치적인 힘은 없다 하더라도 보다 더 논리로 무장하고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서 반드시 가져올 수 있도록 그 의지를 표명하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후보자님, 오랫동안 해양·항만 쪽에서 일을 하셔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국가 4대 항만은 가급 보안시설 맞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맞습니다.

○전종덕 위원 해수부가 보안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서 2022년 연구용역을 했고 그 연

구용역 결과 23년도에 4대 항만에 있는 특수경비 노동자를 청원경찰로 전환하고 4대 항만의 보안 체계를 일원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또 지난 국감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전 장관께서도 특수경비를 청원경찰로 전환하고 항만 보안의 전담기관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정책의 유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오히려 현장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울산항의 경우에는 3개의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제가 국감에서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좀 줄이고 일원화시키겠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오히려 4개 상황실로 늘었습니다. 거꾸로 가고 있는 거지요. 인천항의 경우도 특수경비를 청원경찰로 전환하기로 노사 합의를 했고 그래서 노조가 고소했던 것들 취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장은 거꾸로 가고 있고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국회에서 답변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님께서 특별히 더 챙겨 가지고 4대 항만 보안 업무를 현재 특수경비를 청원경찰로 전환하고 4조 2교대, 4조 3교대로 전환하고 있는 정책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꼭 좀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겠다’ 이렇게 답변은 하는데 이행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언론보도에 따르면요 부산항 중국 관광객 크루즈가 지금 보니까 21배 늘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알고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인력이나 장비를 보강해서 이 문제 관련해서 관련 점검과 대책을 지시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알고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국제해양선박보안법에 따르면 보안검색 업무 주체가 누구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지방 항만……

○**전종덕 위원** 4대 항만에서 하는 거지요. 4대 항만 시설에서 해야 됩니다. 맞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맞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관문항인 부산항에서는 지금 선상에서, 터미널도 아니고요 선상에서 그리고 보안점검 업무의 전문가도 아닌 선원들이 그것도 외국인 선원들이, 선상에서 보안검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이것 불법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아마도 그게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전종덕 위원** 신속도 좋지만 지금 관세청 자료 보니까 마약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 폭발물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 5년간 보니까 해양·선박을 통해서 20건이 적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양으로 보니까 53.6%나 이렇게 해양·선박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마약이나 폭발물이나 밀입국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에 아무 보안검색 없이 이렇게 국내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어찌 보면 보안검색에 구멍이

푼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 만약에 보안사고 발생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항만 시설에서 책임지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전종덕 위원 계속 이렇게 두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 인력 보강하면 될 문제거든요. 인력 보강하면 될 문제예요. 터미널에 다 장비가 6대나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인력 보강하면 될 문제인데 그것을 안 하려고 이렇게 선상에서, 그것도 불법 시비가 있는 외국 선원들에게…… 이것은 당장 중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안도 충분히 강화하면서 또 신속하게 출입국도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불법입니다. 지금 법에 따르면 선원들이 보안검색을 할 권한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원들이 하고 있는 보안검색 중단해 주시고 인력이나 장비 보강해서, 대통령 지시사항 있지 않습니까? 보강해서 보안업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꼭 좀 철저하게 실태조사 하시고 점검해서 보완대책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챙겨 보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이어서 항만시설보안료 징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외국에 비해서 보안료 징수 실적이 상당히 낮습니다. 3.1%인데, 나머지 보안 예산을 국가가 다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 예산은 있는데 항만시설의 보안료 징수 실적이 너무 낮으니 국가예산 부담도 크고 또 운영 선사나 이런 데 특혜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국감에서 지적하니깐 해수부가 3월 6일 날 업무처리요령을 개정했어요. 그런데 요율만 올리고 어떻게 징수를 하겠다는 대책은 없어요. 안 그래도 안 내는데 요율 올리면 더 낫까요? 이것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징수를 어떻게 할 건지 징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뿐만 아니라 징수를 해 가지고 그걸 어디다 쓸 건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인력 부족하고 장비 부족하고 이렇게 환경도 개선해야 하는데 오히려 징수율을 높여서 이런 데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징수 대책 세워 주시고, 국가의 예산을 또 낮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서비스 질을 올릴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책도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요.

방금 전 임호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수협중앙회를 포함한 수협 관리감독권이 해수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도 없이 횡령, 배임, 부당대출, 조합장 부정선거 이런 것들이 계속 시비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경남 통영 굴수하식수협 43억 원 부당대출·횡령, 전남 고흥군수협과 경남 사천수협 예탁금·시재금 횡령, 보령 서부수협의 가짜 어민 등록 의혹 사건으로 계속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농협 얘기도 나왔는데 선거를 둘러싸고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앙회장이 나오면서, 노동진 중앙회장 같은 경우 성접대 의혹 시비가 또 오르내리고 했었습니다. 수사도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농협도 문제이기는 한데요. 농협은 1110명의 조합장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협회장을 선출하는데 수협은 91명이 선출합니다. 이게 어떻게 민주적으로 선출이 운영될 것이며 선거제도에 부정의, 금권선거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이 오히려 부정과 비리를 더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농협처럼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전환할 수 있는 대책도 좀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상적 관리감독이 해수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수협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제도개선 대책도 꼭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장관이 되면 챙겨 보겠습니다.

특별히 운영에서 불법이나 불투명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 봐서 또 방안도 마련하고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저는 길게 질문했는데 장관님은 짧게 답하셔 가지고, 지금은 후보자 신분이니까 그러실 수 있는데요. 장관 되시면 이것 꼭 챙겨서 대책을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전종덕 위원님께서 길게 질문한 것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위원장 어기구** 다음 문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금주 위원** 지역현안 관련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K-푸드의 침범, K-수산물 수출의 일등 공신 뭘지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김입니다.

○**문금주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수출액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김 전문기관을 설립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지금 3건 발의돼 있고 4월부터는 해수부에서 김 전문기관에 대한 설립 타당성, 형태 등 연구 용역을 수행하려고,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설립이 된다면 어디로 설립이 돼야 될까요? 참고로 전남은 물김 생산의 77%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임호선 위원** 전북, 전북.

○**문금주 위원** 전남.

거 중간에 끼어들지 마세요, 좀.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산업적으로 연계가 많은 곳에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

합니다.

○문금주 위원 당연히 전남이겠지요.

동의 안 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그 방향으로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검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농수산물 지원 보관시설 사진 한번 봐 보실래요?

외관상으로 보면 이게 농작물 저온보관시설, 수산물 저온보관시설인지 구분은 안 되는데 전기공급약관에 들어가 보면 농작물은 농작물 저온보관시설로 규정을 하고 있고 수산물은 수협 또는 어촌계 단독 소유 운영 저온보관시설로 한정이 돼서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어업인들은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을 받아요.

좀 문제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문금주 위원 그래서 장관님 되시면 전기요금 체계 관련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산자부와 또 한전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이 문제 반드시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어업용 전력체계에 맞게 될 수 있도록 산업부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리고 삼치, 대구, 감성돔, 꽃게, 갈치 등 주요 어종 전반에서 지역별 금어기를 조정해 달라는 요구들이 지금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 관련해서 계속 조정…… 용역을 하고 있네 뭐 검토를 하고 있네 이런 얘기만 지금 들리던데 금어기는 아시다시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 기후변화랄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효성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앞으로는 어종별로 또 지역별로 별도로 구분을 해서 금어기도 조정을 할 필요가 있고 또 과학적으로 현장 기반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싶은데, 여기에 따른 관련해서 민원도 많은데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인식하고 있고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금주 위원 좀 시기를, 계속 검토만 할 게 아니라 빨리빨리 현장대응형 정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문금주 위원 후보자님, 그리고 지역어업인과 잠수기어업인 간 분쟁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들었습니다.

○문금주 위원 저희 지역에서도 이게 지금 저한테 민원이 아주 많은데 해수부 입장은 대법원 판례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서면답변에 보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해 보시고 분쟁 해결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것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후보자님?

제가 보니까 요즘에, 금년 해수부에서 어장이용개발계획 세부지침을 내려 보내시면서 복합양식에 대한 부분을 신규로 할 때는 적극적으로 허가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어장이용개발계획 세부지침을 만들면서 이것은 신규로만 할 때뿐

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양식어가들에 대한 보호조치도 필요하다, 이분들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신규개발로 보지 말고 대체개발로 봐서 기존의 해조류 양식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패류까지 하겠다 하면, 복합양식을 하겠다 하면 좀 적극적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을 해 주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제가 복합양식 얘기는 사실 오늘 처음 들어서 바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제가 규정도 개정을 해 보고 법도 개정을 해 보고라는 식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그렇게 되면 또 어업 간에, 어민들 간에 분쟁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복합양식으로 대체개발 허가를 내주면 그 분쟁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현장의 민원입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라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챙겨 보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완도 하면 생각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전복 생각납니다.

○**문금주 위원** 그렇기는 한데요. 맞지요, 전복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청해진, 장보고글로벌재단이라고 있더라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들었습니다.

○**문금주 위원** 거기에서 요청한 내용인데 금년에 장보고 청해진 1200주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1996년 해수부 출범 이후에 김대중 정부 시기에 장보고 기획단을 설치해서 국가사업으로 장보고에 대해서 재조명 작업을 추진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장보고 청해진 1200주년 기념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문금주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해양경찰서 신설 문제가 있습니다, 고흥에. 여수 해경이 지금 다 관할을 하는데 여러 가지, 관할 범위가 광범위하고 여수서가 사천서에 대비해서도 2배 이상 행정 수요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해경에서도 지금 용역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후보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금 고흥에는 나로우주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 수요들이 많이 늘어난단 말이지요. 치안 수요도 물론 그렇고요. 그래서 고흥에 해양경찰서 신설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문금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흥의 물김 현장을 제가 가 봤는데 물김 하면 고흥입니다.

○**문금주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제가 현장을 가 봤습니다. 현장을 가 봤는데 대단했습니다.

다음,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태 위원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의 질문 이어서 조금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공직 퇴직하신 후에 유관기관으로부터 받았던 자문료 그리고 특강료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맞습니다.

○박준태 위원 통상적으로 한 50만 원 선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문가라 하더라도, 500만 원 가까이 또 특강료는 200만 원 선에서 지급된 것은 아무래도 퇴직 후에 고위직을 하였던 분들을 관리하는 취지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같이 자문위원회 활동 하였던 분들 보면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관 취임하시면 이런 부분들 살펴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태 위원 그리고 아까 두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취업심사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취업심사 대상이 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왜 승인을 받지 않고 일을 하셨냐라는 점에 대해서 일단은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잘 몰랐다 그다음에 이것이 취업승인 대상기관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이걸 알고 신고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그렇습니다.

○박준태 위원 그런데 제가 좀 확인을 더 해 보니까 수협중앙회에서는 본인의 기관이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해당한다는 걸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요. 그래서 취업하시는 분들한테 본인들이 그런 것들을 안내하고 통보하는 절차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그런 과정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심사시스템 제가 보니까 후보자님보다 앞서서 수협중앙회에 취직한 고위공직자분들은 대부분 취업심사를 받으셨습니다.

○문금주 위원 아는데……

○박준태 위원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만약에 진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바로잡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건 가지고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두 번 받으신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해서 작년 8월에 50만 원, 작년 10월에 40만 원 두 차례 받으신 겁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태 위원 이 부분이 진짜 억울했다면 법원의 그런 처분도 없었겠지요. 아닌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도에 인사혁신처는 규정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2025년 1월에 지정하고 난 뒤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2025년 7월부터 과태료를 때렸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는 부분이고 사실 만약에 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됐다면 19년도 이후부터 계속 과태료를 때리든지 해야 저희들도 경각심을 갖

고 이걸 아니라고 판단을 할 텐데……

○박준태 위원 그러면 후보자님과 비슷한 이유로 승인 대상……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19년도 이후에 해수부의……

○박준태 위원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제가 알기로는 다섯 분인가 여섯 분이 있습니다.

○박준태 위원 좋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후보자님 전임자가 전재수 전 장관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박준태 위원 지금 뇌물수수 혐의받아서 사퇴를 한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부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불명예스러운 일인데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다른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문 주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준태 위원 전임자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그 부분은……

○박준태 위원 아무리 그분이 지금 선거에 나오고 이 정부에서 중요한 분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부처를 끌어가야 될 수장으로서 어떤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입장은 있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제 소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준태 위원 비슷한 사건으로 청렴 문제를 일으킨 직원들이 있을 때 그 처분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그런 기준조차도 밝히실 수 없으면 엄정한 업무 처리가 되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전임 장관이 아직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단을 하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박준태 위원 다른 것 여쭙볼게요.

헌법상 보면 장관도 대통령 보좌 기능을 합니다. 맞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그렇습니다.

○박준태 위원 그런데 대통령의 참모 기능을 하는 기관이 따로 있지요? 그게 지금 대통령실입니다, 청와대. 맞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박준태 위원 거기 해양수산비서관이랑 앞으로 협업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박준태 위원 그분 개인적으로 좀 아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아니, 아직까지 한 번도 뵈 적은 없습니다.

○박준태 위원 이현 비서관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자료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쿠시마 처리수 해양 방류 반대했던 분이예요. 여기 나와 있지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 전 세계인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불가역적인 손상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렇게 수차례 주장도 하고 활동을 해 온 분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2023년 당대표 시절에 ‘사실상 핵폐기물이 유출되는 거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알고 계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그 뒷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준태 위원 둘 다 모르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이 사안 둘 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박준태 위원 그러면 해수부 입장은 뭐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해수부 입장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시니까 제가 보면서 판단 들었던 것은 그 당시에, 2023년 8월에 방류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국민적 우려도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염수 방류가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에 대해서 과학적인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준태 위원 예, 거기까지 들겠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아까 이 후쿠시마 처리수, 오염수 관련해서도 자문 업무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그랬습니다.

○박준태 위원 화면 좀 보여 주세요.

지금 해수부 입장입니다. ‘WHO 먹는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게 지금 해수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맞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맞습니다.

○박준태 위원 그러면 후보자께서도 이 생각이시겠지요. 동의하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지금 그렇습니다.

○박준태 위원 그러면 과거라 하더라도, 이현 비서관이나 대통령께서 과거에 밝히신 그 입장이 지금 해수부 입장과는 충돌한다는 것도 인정하시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당시에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박준태 위원 그러면 결과를 볼까요?

보여 주세요.

지금 식약처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 일본산 수산물 그다음에 국내산 수산물 역시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주장이 잘못된 것 맞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그 당시에는 과학적 판단 근거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준태 위원 그러면 근거도 없이 정치적인 주장으로 선동했다는 얘기에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정치적인 주장이라기보다는 당시에는 많은 국민적 우려가 있었고 그런 주장도 여럿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준태 위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석 위원 후보자님, 제가 6년 동안 어민들 현장 의견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공직자에 있을 때 위원님이 주신 것 본 적 있습니다.

○서삼석 위원 거기 보면 현장 어민들이 여전히 수산직불제를 확대해 주고 개선해 달라는 것을 해수부의 중점 어업정책으로 꼽고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동의합니다.

○서삼석 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주장을 보면 ‘직불제는 국가 식량주권을 책임지는 어업인에 대한 공익보상이다. 그런데 농업과 어업직불제가 형평성 문제가 많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서삼석 위원 농지이양 직불제 신청 연령은 만 85세, 수산 경영이양직불제의 경우 만 79세로 현저히 차이가 나잖아요. 또 승선기간을 6개월로 책정하다 보니까 승선일수가 여러 날인 선원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례 이런 것들의 불합리함을 구조적으로, 원천적으로 조정을 하거나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는데 공감하시나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공감합니다.

○서삼석 위원 대통령께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사항이니 그 연장선상에서도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특히 먼 섬 중복지원을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달라는 게 중론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도 같이 들여다봐 주시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챙겨 보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챙겨 갖고는 안 돼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리고 제가 직불제를 개선하는 법을 지난 3월 초에 발의한 것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꼼꼼히 들여다봐 주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서삼석 위원 그다음에 산지 위판장 현대화사업 점검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해수부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23~27을 보면 노후화한 산지 위판장 100개소를 현대화한다고 목표를 설정해 뒀어요. 그런데 2차 기본계획 종료시점이 2년도 안 남았잖아요.

현재까지 전국 산지 위판장 190개소 중에 현대화된 위판장이 잘 모르시겠지만 혹시 몇 개인지 아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제가 방금 말씀을 정확하게……

○서삼석 위원 전국 산지 위판장 190개소 중 현대화된 위판장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한 20여 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삼석 위원 알고 있구먼. 제대로 알면서 살짝 하나 빼 가지고 20개라고…… 19개예요, 19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만큼 현지 위관장들의 시설이 열악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니까 국민의 식생활 수준이 높아진 만큼 또 어민들이 생산해 내는 고기들이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도 나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동의합니다.

○서삼석 위원 장관이 되시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속도를 내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도 의원실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서삼석 위원 이건 질문은 아니고 강조하는 건데 존경하는 주철현 위원님, 문금주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수산2차관제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되고 뭐니 뭐니 해도 여러 인프라나 통계를 보면 수산수도는 전남이 맞다는 것을 주장하니까 뭘 꼭 이 자리에서 해 달라 말아 달라는 것보다는 그런 인식을 후보자가 가져야 된다. 그리고 향후 관련된, 유관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전남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들께서 강조했으니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유념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신 질문 내용 중에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할 수도 있다는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협동조합이 엄연히 글자 그대로 조합원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이고 그 협동조합을 회원조합으로 두고 있는 데가 중앙회입니다. 협동조합 설립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을 요구해야 되고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도감독 권한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은 법으로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법을 강화시키면 되는 건데 그것도 어찌 보면 꼭 제도개선만이 약인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협동조합 설립 취지를 훼손하는, 반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든지 간섭을 하든지 지도하든지 감독하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글자 세 가지로 말하면 자율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무리 상급 감독기관이어도 저는 철저히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모든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니까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관련된 일들이 있었을 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알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오늘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많은 약속을 했는데 후보자의 심정으로 보면 살펴보겠다라는 그런 내용은 반드시 철저히 이행하겠다, 추진하겠다는 결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거듭 축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호 위원 후보자님, 앞서 박준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2021년도 7월부터 22년 8월까지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을 하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서천호 위원 그리고 그 이전에는 해사안전국장 하시고,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서천호 위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처음 결정될 당시에 해사안전국장으로 재임하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21년도 상반기……

○서천호 위원 21년 4월 맞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맞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 당시의 내용을 보면, 21년도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만약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의 기준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를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 수차례 밝혔습니다. 또 21년 7월에—문재인 정부 당시입니다. 오염수 방류 결정 3개월 만이네요—수입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광고를 송출하여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실장 하실 때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천호 위원 아니, 그 당시에 실장으로서 이게 가장 큰 이슈였는데 기억이 안 나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저는 그 부분은……

○서천호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실제 방류가 되기 전에는 정부에서 또 해수부에서 방류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홍보까지 하고. 해수부에서 하셨어요, 외교부장관도 나서서 하시고. 그런데 이십 몇 년도에 이게 방류가 됐습니다. 방류가 되다 보니까 각종 괴담을 쏟아 냈어요, 시민단체, 일부 정치권에서.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은 어떻게 했냐 하면 ‘그 당시에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해서 그런 여러 가지 괴담 수준의 의혹들이 제기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그러니까 2023년도 8월에 방류가 됐고 그……

○서천호 위원 그래요. 방류되기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절차가 있었고 방류되고 난 이후에 일부 시민단체나 정치권에서 핵 오염수다, 어떻다 한 이런 괴담들이 있었는데 그 괴담이 있었던 이유는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맞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건 있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최근 정부에 들어서서 전혀 문제가 없다 하는 부분을 발표를 하셨어요, 해수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지금 계속 정점……

○서천호 위원 그러면 과학적 근거가 뭐가 보충이 됐습니까? 그 당시와 뭐가 보충이 됐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데이터들이 계속 쌓이면서 지금 현재로는……

○서천호 위원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쌓였어요? 그 당시에 또 정부에서 데이터가 문제가 없다라고 발표가 됐고, 그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쌓였다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제가 기억하기로 2021년도에 제가 해사국장 할 때는 정점 오염수 판단이 하나가 있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선박평형수를 버릴 때 그 선박평형수에 대해서도 오염도를 다 측정을 해서……

○**서천호 위원** 21년도는 실제 방류가 되기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23년도 8월 24일 날 방류가 됐잖아요. 그러면 23년 8월 24일 방류되기 이전에 방류를 해도 좋다고 그 당시 정부에서 외교부장관, 해수부장관을 통해서 다 홍보를 했어요. 이 수산물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홍보를 했는데 막상 방류를 하니깐 문제가 많다, 많은 시민단체들이 이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해수부 입장이 바뀐 게 별로 없습니까. 그렇지요?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해수부는 계속 정점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수산물 안전도를 계속 측정을 하면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주 임무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천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장이 바뀐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해수부의 입장이 바뀐 게 없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해수부는 항상 했던 대로 정점을 공개하고 있었습니니다.

○**서천호 위원** 그렇다면 이 오염수가 방류되기 전 해수부의 입장과 오염수가 방류되고 난 이후에 해수부의 입장이 바뀐 게 없다면 그 중간에 일부 시민단체나 정치권에서 문제 제기를 했거나 여러 가지 괴담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지금 후보자도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또 기획관리실장도 하셨잖아요. 다시 입장을 묻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현재 지금 해수부 입장은 수산물도 안전하고 바다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러면 그 당시 오염수가 방류되기 전 그다음에 방류되고 난 이후 지금도 해수부 입장은 똑같은데, 똑같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서천호 위원** 그렇다면 제가 다시 묻습니다. 그 중간에 많은 시민단체, 일부 정치권에서 이 방류 오염수 자체가 문제가 많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거나 잘못된 선동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셔야 된다는 얘가지요. 입장이 어떠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오염수가 방류됐을 때 많은 우려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서천호 위원** 일부 우려가 있다는 부분은 개별적인 사안이고 해수부 입장을 묻는 겁니다. 지금 장관후보자시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해수부가 계속 측정하면서 판단하건대 우리 바다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굉장히 적고 수산물도 비교적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렇다면 해수부 입장도 그렇고 지금 후보자님 입장도 그 당시와 지금은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렇다면 그간에 있었던 많은, 일부 시민단체 또 일부 정치권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여러 괴담 수준은 잘못된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저희가 판단하기보다는……

○서천호 위원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하던 중에 염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바다 염도가 한 33%에서 2% 또 적게는 3%까지 급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고 받으셨나요, 혹시? 남강댐 방류로 인해서……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따로 보고받지는 않았습니다.

○서천호 위원 한번 받아보시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실제로 집중호우 기간 중에 육상 쓰레기가 바다로 내려온다든지 또 염도가 낮아지면 실제로 해양생태계가 다 파괴가 됩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혀 없습니다.

추가질의……

○위원장 어기구 추가질의 3분 남아요.

○서천호 위원 30초만 주면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30초 주면요?

○서천호 위원 예.

○위원장 어기구 1분 드리세요. 추가질의 없습니다.

○서천호 위원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후보자 답변에 대해서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어기구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임미애 위원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계속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해수부에서 시료 지점을 정해 놓고 시료 채취를 통해서 혹시 여기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것들이 발견이 되는지를 계속 검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치 지금 단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라고 답변하는 식의 태도는 저는 과학적인 태도도 아니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올바른 답변 태도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수부가 ‘국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 태도가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답변 태도에 대해서, 발언에 대해서 좀 정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유념해서 답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후보자님.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다음으로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후보자님……

○조승환 위원 잠시만요, 저도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어기구 예.

○**송옥주 위원** 질문하려고 그랬더니 자꾸……

○**조승환 위원** 죄송합니다, 송옥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인데 말이지요. 그 당시에 과학적 증거가 부족했다, 과학적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핵폐기다, 핵폐기수다 이런 거는 정당하다라는 인식의 답변은 저는 이거는 답변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과학적 증거는 충분했고 지금 현재…… 임피에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계속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 그렇게 답변하는 것도 맞지만 ‘과학적 증거가 전에는 부족했다. 그런데 지금은 과학적 증거가 충분하다. 그래서 중간에 이 피담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답변 태도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후보자님, 수산물 물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물가 대책에 대한, 물가안정에 대해서 최대 현안으로 말씀을 하시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자라고 하셨는데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송옥주 위원** 지금 해수부 관련된 수산물 물가와 관련해서 두 가지 변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가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부분인 거고 또 한 가지는 율여름이 유난히 덥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미국-이란 전쟁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 20일에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4월 위기설도 나오고 있는 언론 보도도 보고 있고요. 이 유가 상승은 어가의 물류 운임과 또 유류비 상승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유류비 상승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전쟁 추경이나 그런 데 좀 담았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잘 추진되고 있나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잘 추진되고 있고 지금 추경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리고 이제 물류비가 증가함으로써 곡물이라든지 어분 등 사료 원재료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 어업인의 사료비 부담도 상당히 늘고 있는데요, 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갈치, 고등어, 오징어 가격이 전월 대비 20%, 8%, 77%가 각각 상승을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우리나라가 중동산 수입 수산물 의존도가 좀 있네요. 오만산 갈치를 많이 수입을 하는데 전체 갈치 수입량의 한 31%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갈치는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수산물 중의 하나인데 이게 장기화되고 나면 이런 갈치를 포함해서 수산물에 대한 물가상승의 우려가 있는데 혹시 점검도 하고 계시고 대책 마련도 하고 계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계속 수급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송옥주 위원** 장관이 되시면 좀 더 꼼꼼하게 이 부분들 대책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엘니뇨 현상인데요. 기상청이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과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70~80%가 높을 거다라는 보도가 난 적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들었습니다.

○송옥주 위원 엘니뇨가 본격화되면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2℃ 이상 높은 슈퍼 엘니뇨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동안 해안가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어민분들이 많으신데 고수온 피해가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송옥주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고수온 피해로 인해서 어민과 어가의 피해뿐만 아니라 수산물 가격 인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물가가 변동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대책이 있다든지 아니면 엘니뇨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어떤 파트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보고를 받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고수온 관련해서는 2024년도에 1430억이라는 큰 피해가 났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대형 장비라든지 공간 이동,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와 관련해서는 순간적으로 많이 오를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할인 부분도, 할인쿠폰이라든지 그다음에 온라인 장터 확대, 여러 가지 등등을 통해서 물가를 계속 안정시키고 일정하게 유지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현장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어서 장관이 되시면 꼼꼼히 잘 살펴보고 또 어민과 어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즉각적으로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친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활성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과 전환이 지금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해수부에서도 친환경 선박과 관련된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맞습니다.

○송옥주 위원 국제해사기구 잘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IMO라고 알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2023년에 채택한 온실가스 감축전략이 있는데 2050년이 되면, 이게 보니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이거에 따라서 EU는 작년 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나 연료표준제, 과징금 부과에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국제해사기구는 2028년부터 이 규제를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친환경 선박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수준까지 준비가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계속 EU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탄소세가, 거의 몇천

억 수준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친환경 선박으로 바꾸는데 대해서 정책·금융 그다음에 신조에 대한 지원금 이런 것들을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이재명 정부 들어서 무탄소 선박 개발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요 지난해 1조 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 연료 인프라 펀드를 출범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이 펀드가 잘 운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는 체크하신 게 있으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따로 체크한 것은 없습니다만 챙겨 보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이 펀드가 잘 운용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조선과 해운 업계의 상황,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저희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점검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용은 좀 방대하기는 한데 그 자료는 나중에 저희가 드릴 테니까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겠고요.

간단하게 이 업계에서는 차세대 연료 선박의 실증 안전성 검증 비용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기업에서 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서 정부보조라든지 출연 등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부의 업무가 중복돼 있어서 상당히 복잡한 행정시스템을 갖고 있다, 일원화가 필요하다, 이것을 위해서는 협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발주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의 친환경 연료 공급 협의체를 구성하라라는 등 실질적인 요구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포함해서 자료를 좀 검토하신 다음에 실질적으로 해운·선박 업계에서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좀 절실하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후보자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수협중앙회 수산업발전자문위원회, 해수부장관으로 취임하시면 일종의 감독기관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이만희 위원** 그런데 제가 살펴봤을 때는 1년에 한 3000만 원가량의 자문료가 지급되고 있는데 자문위원회의 운영 자체가 사실은 수협중앙회의 어떤 우호적인 세력들 아니면 전관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자문위원회의 필요성이 어떤지, 실질적인 필요성이 어떤지에 대해서 개선할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좋겠습니다.

전임 장관이 얼마나 재직하신지 아십니까, 전재수 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한 6개월 정도 하신 걸로 알고……

○**이만희 위원** 아닙니다, 4개월 보름 정도 하셨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25년도 7월 달에 취임하면서 민중기 특검에서 통일교로부터의 고급 시계라든지 아니면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진술이 확보된 것은 8월 달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특검이 거의 마치는 시점까지 국민들한테 숨긴 겁니다. 그게 국민들한테 발표가 되니까 사실은 그 직을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부산시장후보로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그 과정에서 사실은 여러 차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것 실질적으로 하나의 지방선거 출마용 경력 쌓기 아니냐는 지적도 많이 있었고, 물론 본인은 부인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게 거의 확실하게 됐다는 말이랑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 상황에서 굉장히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해수부가 그리고 북극항로 그런 것들이 여기에 활용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해양수도의 육성이라든지 아니면 북극항로의 개척이라든지 이런 시대적 관점에서 한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거의 100일 가까이 해수부장관직을 공석으로 둔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장관님, 지적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한 가지가 해수부 이전 관련된 사항입니다.

PPT 8번 한번 띄워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내용이 앞에 보시면 해수부를 임시로 이전하는 겁니다. 신청사 마련 계획은 별도로 있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만들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니까 신청사에 입주하기 전에 임시로 빨리 가야 되는, 그냥 급한 분불이 있어서 가야 되니까 해서 옮긴 사항에 들어가는 예산들이고 물론 그 밑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268억 5000만 원은 관리비와 임대료가 매일 이 정도 들어가는 걸 전제로 해서 기재해 놓은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주지원, 거주지원 다 합쳐 가지고 거의 한 486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아까 장관후보자 답변 중에서 공공기관 이전하고는 별도로 해수부 관련기관들 세종이나 서울에 있는 것들은 모두 부산으로 가야 된다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이만희 위원** 그러면 그 관련기관들의 이전에도 해수부 이전과 같은 수준의 지원이 있어야 되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만희 위원** 그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직원들의 정착지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은 장관후보자께서 앞으로 해수부 직원들 이전하는 만큼의 지원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지금 지자체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조만간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희 위원** 저는 이 이전 관련해 가지고도 기본 청사를 짓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해서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과연 예비비까지 동원해서 저렇게 임시로 이전하고 또 졸속으로 이전하는 게 필요하나 이거지요. 예산 낭비라는 지적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북극항로 관련해 가지고 북극항로가 수백 년 내에 온 아주 엄청난 기회인

것처럼 많이 포장을 하셨는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가적인 경험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북극항로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랄까 취약성은 어떤 것들이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북극항로는 어쨌든 해빙이 녹으면서 생긴 항로기 때문에 안전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운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희 위원** 북극항로에 대한 대비는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내년, 내후년에 바로 현실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북극항로에 대한 최초의 준비라든지 국가 차원의 준비는 2013년도 박근혜정부 당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기억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래서 이것 보면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에 따른 것 또 날씨의 문제에 따른 것, 물류시스템의 한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요. 이런 걸 다각적으로 판단하시고 또 여기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결정을 하실 때 전문가적으로 그냥 보여 주기식이 아니라 진짜로 국익에 보탬이 되는 또 실현 가능성이 있는 방향으로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만희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저희가 북극 운항 부분을 지금부터 추진하는 이유가 시범운항만 해도 한 5년 정도가 걸립니다. 5년 동안 많은 데이터를 축적을 하게 되면 이제 상업 운항 쪽으로 추진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규모의 경제로 넘어가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중국이 벌써 스물아홉 차례나 북극항로를 운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늦지 않게 대비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노력했습니다.

○**이만희 위원** 말씀대로 시범운항 준비에만 5년이 걸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것인데 마치 그냥 금방 우리한테 다가온 현실처럼 호도를 하기 때문에 지적말씀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병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 후보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 다 우려하고 계시는 내용이 중동지역 분쟁,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여러 가지 국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해수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이런 과정 속에서 선사들의 항해거리, 운송기간 증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뒷받침해서 실제 물류 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또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이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한 뒷받침을 제대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지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여기에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만큼 이번 추경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을 미리 잘 추론해서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윤준병 위원** 그리고 아까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좀 애매모호하게 답변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2021년 3월에 방류 결정을 할 때 실제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안 하고 육상에 매립하면 그런 위험을 최소화하고 여러 나라에 영향을 안 미칠 수 있는데 처리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해상 방류를 결정한 거잖아요. 그리고 해상 방류를 결정해서 여러 가지 해양오염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양오염의 가능성을 낮추라고 또 제대로 과학적으로 규명해보자고 많은 우려와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 내용들이 지금 폼페이되기로는 괴담이다 이런 내용으로 폼페이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도 오염수 방류해도 좋다고 하는 내용은 누구도 주장하지 않을 겁니다.

오염수 방류가 결과적으로는 6개월에서 6년, 10년, 장기간에 걸쳐서 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불어넣어야 된다는 내용도 하나 있고 다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연안에서 우리가 잡고 있는 여러 가지 어산물입니까, 수산물들이 부분에 오염이 안 돼야 우리 국민의 여러 가지 안전 부분이 담보되기 때문에 건강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제대로 체크하자.

그래서 지금 검사소 한 3000여 개…… 300여 개입니까, 3000여 개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300여 개고 1년에 한 1만 6000건 정도 수산물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 300여 개소에 이 부분을 설치해서 검증하고 있는데 ‘검증해 보니 지금은 다행스럽게 아직 오염된 내용이 적발되지 않아서 우리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지금 해수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거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계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방류했는데 다만 현재 우리 연안에서 채취되고 있는 우리 수산물들이 아직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정도의 내용은 없다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지금 정리되고 있는 거고 ‘현재 WHO의 물관리 기준이나 이런 데에 아직은 부합합니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아니, ‘우리가 현재 우리 연안에서 고기들을 잡아 가지고 검사해 보니 아직은 안전합니다’ 하는 내용하고 ‘일본 후쿠시마 해상에 오염수 방류하는 것이 괜찮다’ 하는 것과 다른 거고 또 방류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괴담이다 이렇게 폼페이하는 것도 잘못된 거다. 그 부분은 역시 IAEA가 아니고 다른 측면에서 유엔 해양법이라든지 해양환경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을 거치지 않은 만큼 그런 내용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제가 표현이 서툴러서 여야 위원님들께 오해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준병 위원** 지금 현재 국정과제가 뭐뭐 있어요, 이재명 정부에서 해수부의 국정과제?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세 가지가 있습니다. K-해양강국이 하나 있고요 연안 경제 활성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해양주권 확보와 건강하고 안전한 바다 이렇게 세 가지가 국정과제로 돼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런 내용들이 잘 구현됐으면 좋겠고요. 해양강국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해수부의 부산 이전 이것도 돼 있을 거고.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 내용과 관련해서 행정도 그렇고 사법도 그렇고 금융도 그렇고 산업적인 내용까지도 좀 해서 해양수도 제대로 만들어 보자는 그 취지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상이 없지요, 아직은?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윤준병 위원** 북극항로 운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지금 9월 시범운항 하겠다는 거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8~9월에 시범운항을 할 계획입니다.

○**윤준병 위원** 준비 상태는 이상이 없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준병 위원** 아니, 추진하고 있는데 이상이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지금 관심을 갖는 선사들도 있고 해서 차분차분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준병 위원** 그런데 선사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신청한 선사가 없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그건 사실이 아닌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저희가 아직 공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윤준병 위원** 아직도?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공모를 하지 않고 지금 관심 있는 선사들이 어떤 지원들이 가능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구두로 서로 얘기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하여튼 그 내용 제대로 챙겨서 북극항로와 관련된 내용이 잘 준비됐으면 좋겠고요. 또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북극항로법 이게 제정이 빨리 돼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처의 노력도 적극적으로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 관련된 제반 사항도 서둘러서 제대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장관에 취임하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용 위원**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이야기들이 나와서 이어서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방류수가 오염수입니까, 처리수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저희는 그래도 표현을 오염수라고 쓰고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오염수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정희용 위원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단 한 번도 오염수라고 쓰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29일 이재명 정부 조현 외교부장관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한 발언을 하면서 후쿠시마 처리수로 지칭해서 논란이 된 거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제가 이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2023년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우물에 독극물을 퍼 넣으면서’ 또 ‘핵폐수라고 불러야 되겠다’ 이런 표현 했던 부분, 지금 현재 국무총리인 당시 2023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방사능물질에 노출된 물고기 등 해산물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과잉 표현을 썼던 부분이 있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줬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적하는 겁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오염수라고 주장하고 처리수라고 주장하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외교부장관이 있는데 그렇게 불안하면 그런 말 쓰면 되겠습니까? 그것 잘못됐다고 지적해야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허용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나 정부 누가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이야기하자 이렇게 주장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그때 걱정해서 지적한 부분을 표현이 과했던 것뿐이지 국민들의 건강을 걱정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저희가 볼 때 그런 것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정부의 오염수 대응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지속 확대돼 왔었는데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한 2026년 예산에는 오염수 대응 예산이 전년 대비 33.8%가 줄어들어서 2547억 원이 줄어든 4984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렇게 걱정했던 것처럼, 국민의 안전이 걱정되고 위험하다고 그렇게 수없이 지적했는데 왜 이재명 정부가 되고 나서 후쿠시마 오염수 예산이 줄어들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답변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희용 위원 독극물이고 방사능물질에 노출된 물고기라 그러고 막 했는데 이 예산을 줄이면 되겠습니까? 더 촘촘하게 봐야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조사 정점이나 수산물 조사에 대해서는 그대로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수산물 소비 위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이 줄어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래서 예산도……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그 당시에 얼마나 우리 수산물, 말씀 잘하셨는데 수산물 판매하시는 분들이나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봤습니까? 매출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그런 과잉된, 소위 말해 괴담 이런 말 때문에 소문이 나면서 국민이 걱정해서 안 가고 지금까지 조사해 보니 단 한 건도 없다 그러고, 그래도 피해는 보고 그 피해 보니까 정부 돈으로 예산 세워 가지고 소비진작한다고 했고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를 돌이켜 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반성하고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 할 게 아니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항 영일만항, 북극항로 관련해서 동남권 항만 말씀을 하셨는데 포항 영일만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 영일만항이 동해안의 관문 거점 항구지 않습니까? 저는 전략적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보낸 답변을 보면 포항 영일만항은 지리적 이점과 배후 산업의 연계성 측면에서 북극항로 개발을 위한 전략적 잠재력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영일만항은 첨단 IT, 전자산업에 특화된 구미 또 신공항 건설, 철도망 구축으로 물류 교통 거점으로 부상하는 대구, 김천 또 고령, 성주, 칠곡을 포함한 내륙 도시를 배후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과 내륙을 연결해서 북극항로 시너지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전략적 요충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합니다.

○정희용 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극항로 거점 항만 조성 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정희용 위원 하고 있는데, 북극항로 거점 항만을 단일항으로 제한하지 말고 포항 영일만항을 비롯한 항만별 배후 산업 여건과 기능, 화물 특성 등을 분석·고려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그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래서 동해안 권역 항만을 연결해서 일명 코리아 멀티포트로 육성을 해 나가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정희용 위원 올 9월에 북극항로 시범 운항하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정희용 위원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지금 여러 가지로 다 하고 있는데요. 일단 선사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화물 유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관련국과 협의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같이 다 차질 없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래서 북극항로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정희용 위원 그리고 어떻게 준비되는지 계획도 저희 의원실로 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시범 운항과 관련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리고 극지연구소에서 북극항로 모니터링하면서 해외 위성정보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정희용 위원 의존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위성정보를 안 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안 불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체 위성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제기된 지가 한참 됐는데 아직도 예산이 잘 안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다고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지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과학 기술을 접목해서 북극항로의 어떤 과학적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체계적 준비는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위성 개발에도 꼭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챙겨 보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정희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선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 후보자님, 오는 3월 26일이면 천안함 사건 16주가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김선교 위원 당시 국가의 요청에 따라서 수색에 참여했던 민간어선 금양호가 수색 종료 복귀 과정에서 사고로 선박이 침몰하고 선원 9명이 희생된 사건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당시 정운찬 국무총리는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금양98호 선원들의 고귀한 희생이 결코 헛되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 방안을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말씀 주시니까 기억이 났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러나 이후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범원 역시 제삼자 충돌 사고라는 이유로 국가의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선주 측은 이후 정부 논의 과정과 2017년 당시 해양수산부장관 단계에서도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고 하시는데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경위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바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따로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김선교 위원 만약 관련 논의가 있었다면 왜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그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래서 결국 생계 문제로 감척 신청까지 검토하게 된 상황인데 현행 제도에서 별도의 지원 경로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챙겨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김선교 위원 금양호 사례와 같이 국가의 요청에 따라 공익적 역할을 수행한 어선과 어민들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후보자 입장을 아주 소신껏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국가의 일에 참여했던 어선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선교 위원 후보자님,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이 깊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그렇습니다.

○김선교 위원 이력서 보니까요. 노 전 대통령이 해수부장관이던 시절에 장관실에 계셨고 대통령 때는 5년이나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어요. 그 인연으로 노무현 재단의 최근 3년간 18만 원씩 기부도 하고 계시고 그런데 후보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제가 다 살펴보니깐 해수부 부산 이전에 부정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비효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김선교 위원 맞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그렇습니다.

○김선교 위원 실제 지난 2000년 당시 노무현 해수부장관은 해수부만 부산에 가는 것은 정부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해서 반대했고 참여정부의 핵심 철학 또한 행정부 부처를 세종으로 집결시켜 자족성을 갖춘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후보자님, 이때 장관실에, 청와대에 계셔서 이런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런데 엇그저께 기자회견에는 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어떤 말씀……

○김선교 위원 부울경에……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도 맞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해양 수도권 육성을 말씀하신 것에도 충분히 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방이 살지 않으면 저희는 국가의 미래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지방에서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가장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 동남권이고 그래서 동남권을 해양 수도권으로 만들어서 성공 모델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컨트롤타워인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직접 내려가서 한번 이 부분만은 성공시켜 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우리 해수부를 내려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러면 참여정부의 철학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 대통령께서는 비효율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마음에 두셨던 부분이고, 지금 이 대통령께서는 지방에서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더 강조점이 있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비효율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아니, 서해안·동해안 해서 남해 또 호남 지역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 중간에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저는 성공 모델을 한번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선교 위원 이걸 연습이 아니에요, 국가 일인데.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아니, 연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김선교 위원 그래서 그 말을 노무현 정부 때 있었을 때는 거기에 오케이, 이명박 정부에 와서는 여기에 오케이…… 철학이 없는 거 아니에요?

○윤준병 위원 이재명 대통령.

○김선교 위원 아,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쪽에 오케이. 장관후보자께서 철학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일단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김선교 위원 또 이걸 다른,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내수면 어업에 아주 관심이 많고 우리도 바닷가가 없는 지역입니다. 내수면

어업이 육성산업입니까? 유지 대상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육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선교 위원 육성돼야 되지요? 국내 내수면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내수면 면적은 모르겠고 생산량이 한 1.1% 정도 생산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렇지요. 생산량은 1.1%고 내수면 생산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금액까지는……

○김선교 위원 1.1%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한 6.3%입니다. 그렇지요? 그 규모는 작지만 부가가치의 잠재력도 높은 산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에 동의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동의합니다.

○김선교 위원 지금 거기 해양수산부에 담당하는 무슨, 국장입니까? 과장입니까? 팀장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지금 조직을 다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것 공부 좀 하고 오셔야지, 당연히 여기에 내륙지방에 있는 위원들도 있는데.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과거에는 내수면 팀장으로 해서 진행을 했던 걸로……

○김선교 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다 끝났는데요.

저도 시간이 좀 있으니까 나머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까 질의 안 했지요? 7분 주셔야지요.

후보자님, 올해 북극항로 시범 운항할 계획이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위원장 어기구 아까 보니까 8·9월 달에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운항할 배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그러니까 선사가 먼저 선정이 되면 같이 이어져서 하는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위원장 어기구 선사가 선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위원장 어기구 그런데 선사가, 여기 가려면 쇠빙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내빙선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내빙선 정도로? 8·9월 달에는 북극항로가 열리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위원장 어기구 그리고 여기 친환경 선박만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병커C유 같은 것……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규정은 발효가 됐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발효가 되는 것은 29년이어서 지금은 일반 선박용 경유를 사용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만……

○위원장 어기구 지금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저희들은 최대한 친환경 연료로 운항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그러니까요. 지금 벙커C유 같은 이런 오염물질을 사용하는 배는 출항 금지를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허가된 그런 배를 구하려면 쉽지가 않을 텐데 이런 배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우리나라에도 배가 2척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규모는 3000TEU급 컨테이너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외국에서 용선을 해 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그러려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8·9월이면……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선사들이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그래서 정부가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사들보다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계속 체크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그게 또 2030년 이후에는 북극항로가 완전히 열린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은 여름철만 다닐 수 있지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운항할 수 있는 일수가 한 2개월 정도 더 늘어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그래요. 그러면 그때는 쇄빙선도 필요하고 그야말로 친환경 선박도 필요할 텐데 이런 것들을 정부가, 부산으로 해수부 이전한 게 이것 때문에 간 것 아니에요, 북극항로? 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히, 정부가 좀 더 꼼꼼히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쇄빙·내빙 선박도 건조해야 되고 또 전문인력도 필요할 테고 또 항만물류·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고 정부가 할 일이 너무 산적해 있는데 너무 생각을 하지 않은가 싶은 우려가 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해운선사들의 공동행위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위원장 어기구 이게 미국, 일본, 중국도 다 허용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도 한 40년 넘게—이게 한 48년 정도 된 것 같아요—해운법에 따라서 해수부가 관리·감독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UNCTAD에서 원래 해운의 공동행위를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그런데 공정거래법에서는 공동행위가 부당한 담합행위다 해서 과징금

매기고 그랬는데 이게 정부부처끼리도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공정위원회의 논리가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있고 전체적인, 국제적인 어떤 관례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그러면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게 법원도 고법하고 대법하고 다르잖아요, 법원도 다르고 부처 간의 생각도 다르고. 이걸 해수부가 전면적으로 나서 가지고 조정하고 갈등을 풀어야 되는데 우리 장관님이시면 이 문제 풀 수 있겠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적극 협의해서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법 개정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우리 농해수위에서도 작년 12월 1일 날 이것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보냈는데 법사위에서 공정위의 반대로 논의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장관님께 다시 한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또 저는 이번에 알았는데 이게 좀 심각한 문제예요. 부산항 전체 부두 9개 가운데 5개가 외국 자본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국부 유출로 이어지고 있고 이걸 그냥 그대로 두고 볼 것인가.

지금 부산의 1위 부두, 가장 큰 부두인 신항 2부두는 두바이 DP World가 최대 주주이고 또 신항 1부두는 싱가포르 PSA, 스위스의 TIS, 신항 5부두는 호주 맥쿼리, 이런 다국적 회사들이 와 가지고 우리 부두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나라 기간산업이고 국가항만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외국계 주주한테 다 배당으로 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대로 놔두실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외국계 운영사가 들어와서 사실은, 물론 일정 부분의 이익 배분 부분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운영선사들이 물동량 유치에 굉장히 많은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어기구 장점은 배우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우수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선광 이런 기업들, 제가 인천항만을 가 봤는데 잘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기업들한테 좀 주고. 부산항만공사는 뭐 합니까, 돈 벌어 가지고 전부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는데?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위원장님 우려를 저희도 다 공감할 하고 있어서 지금 진해신항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운영사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그래요. 장관님이 이 부분 최고 전문가니까 국부 창출에, 우리 국부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안 되거든요. 유념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DP World가 운영하는 부산신항 PNC터미널 있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위원장 어기구 여기 검수업무를 갖다가 OCR 카메라를 이용해서 대체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국감장에서 지적을 했고 해수부가 현행법 위반이다 해서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이 친구들이 언제 다시 또 할지 몰라요.

여기에 보니까 검수업은 항만운송사업법과 관세법에 따라서 국가공인자격을 갖춘 검수사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던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다국적기업들이 와 가지고 요즘 AI라든지 카메라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검수업무를 뺏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나라 법이 우선되어 있고, 한 1000명이 여기 부산항 검수업에 종사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따져 보면 한 2500여 명이 검수해서 먹고사는 근로자들입니다.

그래서 외국계 회사들의 검수업 고사시킬 수 있는 이런 영업 행태, 이런 것들을 좀 해수부가 앞장서서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이게 법이라든지 제도가 개선될 사항이면 개선도 해 주시고 우리 근로자들을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17초 남았어요. 17초 남았는데 운영을…… 또 할 게 많은데 한 1분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웃음소리)

나머지는 좀 쉰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16시 30분에 속개해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어기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추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3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임미애 위원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후보자님, 3분밖에 안 돼서 제가 빠르게 질문드릴 테니까 답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t 이상 연근해 어선원으로 고용되는 외국인 비자 송·출입 과정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이것 어디서 관리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수협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국내 민간 송입업체하고 현지 민간 송출업체인데요. 해수부가 수협중앙회에 위탁하고 수협중앙회는 선박 관리업체에 다시 재위탁하는 방식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임미애 위원 국내 민간 송입업체가 선원 지원자로부터 관리비를 받으면 이것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불법입니다.

○임미애 위원 불법입니다. 선원법 111조에 선원 보호를 위해서 모집과 채용 과정에서 금품수수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 현지 송출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선원 지원자가 내야 될까요, 고용주가 내야 될까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고용주가 내야 됩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고용주가 내야 됩니다. 이게 ILO가 말하는 비용전가금지 원칙입니다.

그런데 화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외국인 선원 송출 및 내역 확인서인데요. 2025년 현지 송출 회사하고 선원 지원자가 상호 이의 없음을 약속하면서 체결한 문서인데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잘 안 보이시지요? 저것 좀 확대가 되나요?

입국 전과 입국 후로 되어 있는데요. 입국 전에 업체 수수료 항목에 950달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ILO 공정 채용 지침, 다시 말하면 국제표준 위반입니다. 그리고 입국 후에도 사후관리비 명목으로 1800달러를 추가 부담합니다. 이것 선원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두 다 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냐? 수협중앙회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요?

이 자료를 지난번에 시민단체 요구로 해수부가 수협에 요청을 해 가지고 제출한 자료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협중앙회가 내부적으로 적용해 온 기준인데 해수부는 이걸 알면서도 감독은커녕 묵인해 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탈보증금이라는 것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고용주가 외국인 선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받는 돈인데요. 이것은 송출비용과 달리 비용으로도 안 칩니다. 그 자체로 불법이고 강제노동의 핵심 지표입니다.

화면 보시면 인도네시아 한 선원의 대출과 상환 기록입니다. 이 선원이 현지에서 송출비용과 이탈보증금을 내기 위해서 은행에서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약 3억 루피아, 한국 돈으로 2760만 원의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근해 어선에서 일하면서 매달 870루피어를 갚기로 하고—한국 돈으로는 약 77만 원입니다—36개월 빚을 갚기로 계약을 했고 25년 4월까지 23회에 걸쳐서 성실하게 상환했습니다. 그런데 재해를 입어 가지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니까 고국으로 송환이 되었고 산업재해보상금을 은행 빚을 갚는데 모두 다 썼습니다.

이 선원이 작년 해수부 실태조사 당시 직접 출석해서 이 문제를 진정했는데 오히려 국내 송입업체가 서둘러서 출국조치를 시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수협의 손으로 보낸 거예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어기구** 예, 1분 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다시 말하면 수협 자회사가 외국 송출업체하고 결탁해서 인권침해에 가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인도네시아 선원이 현지 송출업체에 송출비를 내고 받은 명세서인데, 명세서 한번 보여 주세요.

자세히 보면 전체 송출비가 1억 6400만 루피아고요. 한국 송입비, 이탈보증금 이게 합쳐서 1억 5000만 루피아입니다. 그래서 전체 비용의 90% 이상이 불법 수수료와 불법 보증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도네시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모른 척하고 있는 게 수협과 해수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후보자께서 해수부에 재직하던 시기인 2021년 5월 달에 해수부가 인도네시아 인력부하고 근해 어선원 고용·노동 부문 협력에 관한 MOU를 맺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료 보시면.

이것 근무하실 때 했던 일이에요. 여기에 보면 불법 송출비용, 이탈보증금 근절, 어선원 도입 보호를 위해 직접 담당하는 공공기관 지정하겠다는 얘기도 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장관으로 취임하시면 이 문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외국인 선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감독하는 차원과 동시에 기관의 공공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수협이 이거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선원 도입 업무를 전담할 공공기관을 즉시 지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장관이 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기구**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용 위원**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지난 10월 해수부가 동해안에 조업금지구역 설정하는 수산업법 시행령 개편안 입법예고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알고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경북·강원 지역 연안 선망하고 경남지역에서 올라온 근해 소형 선망과의 조업 갈등 때문에, 이것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지금 총리실 규제위 쪽에서 담당하고 있고 곧 법제처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이게 피해 어민들도 있고 하니까 잘 좀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몇 가지 경북지역 현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의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CIQ 시설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데 계획대로 준비되고 준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정희용 위원** 그리고 앞선 질의에서도 북극항로 관련해서 포항 영일만항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항만 규모 확대도 한번 검토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포항 영일만항 항만의 규모 확대, 큰 배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그 부분도 미리미리…… 포항 영일만항뿐만 아니라 북극항로 멀티포트에 해당되는 항만들의 확장성, 규모 확대, 이 부분도 검토해 주

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정희용 위원 작년에 울릉도에 배가 끊어질 뻔 했다는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겨울에?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따로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정희용 위원 여객선사에서 배가 수리가 들어가고 해서 특정 기간 동안 울릉도를 출입할 수 있는 여객선이 없어 가지고, 그때 결국은 해수부에서 노력을 해서 통행이 됐습니다마는 주민들 생존권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겨울은 한참 남았습니다만 여객선 휴업·수리로 뱃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울릉도하고 또 다른 도서지역들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운항체계 관련해서 점검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울릉군 항만 중에 사동항이라고 있거든요. 사동항도 3단계 확장이 필요하다고 하고 그래서 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이 되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국비지원 확대는 늘 지적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 그 부분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정희용 위원 그리고 영덕군에,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에 연안정비사업 실시설계 추진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잘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산물 소비지분산물류센터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정희용 위원 이게 지금 인천, 나주에는 조성되고 있는데 영남권에도 소비지분산물류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들어 봤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래서 수협중앙회에서 입지를 선정했다고 하고 해당 지역에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저희 지역구여 가지고요. 건립될 수 있도록 꼭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 바다 없는 충북 임호선 위원입니다.

내수면에 대해서 짧게 지난번에 나왔던 의견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블루길, 배스 이런 거 잘 못 들어 보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방금 처음 들었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게 유해 어류거든요. 민물에서 우리 토종……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아, 블루길 들어 봤습니다.

○임호선 위원 들어 보셨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임호선 위원 보신 적은 없으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임호선 위원 낚시하는 사람들은 늘 보는 어종이라서요. 이걸 일부러 잡아내거든요. 한 해에 한 207t, 24년도 경우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양을 잡아내는데 이분들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것처럼 사료로 만들기에 좋은 재료가 없대요. 그래서 소형 사료 기계 같은 것들이 내수면 연구소에 있으니까 이걸 내수면 양식장에서 사료 방안을, 사용하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한번 좀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임호선 위원 앞서 말씀드렸는데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수면에는 전혀 지금 지원이, 1년에 279억 원이 여기 친환경 사료 예산으로 투입이 되는데 이거는 내수면에 전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담을 완화시키는 차원, 친환경 사료를 장려하는 차원 이게 이렇게 두부모 자르듯이 나눠서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에요. 그런데 부담을 고스란히 내수면의 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니깐 이 부분 좀 관심 가져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면서.

(영상자료를 보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마 후보자님도 보셨을 거예요. 해양보호생물 혼획 있는데 이게 바다새가, 화면 나오고 있나요? 엄청나더라고요. 이거 이른바 건져 내는 그림을 유튜브로 보면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바다보호생물 중에서 조류 16종을 지금 해수부에서 보호생물로 지정해 놓고 있는데 이게 2010…… 몇 년도예요? 새덕후라고 하는 유튜브에 한번 나온 것도 좀 보시고요.

이걸 실태를 좀 받아 보니까, 대책을 받아 보니까 2018년도에 연구보고서가 잘 나와 있어요, 장관후보자님. 그런데 그 이후에 전혀 진척된 게 없는 거예요. 연구보고서를 2018년에 냈으면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무슨 맨날 바다보호생물 혼획 관리 어찌고 그러면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고래 얘기만 하고 앉았어요. 바다새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이다.

그런데 이거 그 유튜브 한번 찾아보십시오. 뒤에 공직자분들 혹시, 보셨을 거예요. 이거 손 놓으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대책 마련 꼭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자료 주셨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것도 또한 국정감사 때, 분명히 제가 요구를 드렸는데 10월 달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최소한의 대책 강구하셔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때는 추진 사항을 여쭙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현 위원 종합해서 중복되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객선 공영제와 관련해서 해상교통안전기금을 지방자치단체와도 같이 만들어서 점진적 공영제 실시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꺼번에 해결 못 하니까.

지금 여객선 안개 통제기준이 현재는 1km로 돼 있어요. 아시겠지만 72년도 일본 따라서 제정한 제도인데 일본은 현재 1km가 500m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현대 항운 발달에 따라서 500m로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빨리 좀 시행해 주시고.

여수·광양항 관련해서는 아까 항로중심 16m에서 17m 말씀드렸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역장비 자동화 넘어서 AI 스마트항만 구축을 해 달라는 것이 지역의 민원입니다. 검토해 봐 주시고.

전임 박성현 사장이 작년 4월에 그만뒀어요. 지금 1년째 사장이 공석입니다. 정권 출범한 지 1년 다 돼 가는데 이것 안 됩니다. 빨리 좀 임명해 주셔야지 책임 있게 추진을 하지요. 지역 수용성 높여서 임명 빨리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주철현 위원 김이, K-푸드 유명한 이야기는 했었고 굴·전복이 프리미엄 고단백 식품인데 이것도 지금 하여튼 간에 차세대 K-푸드로 육성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결국은 제가 보기에 가공 문제 같아요. 가공하고 브랜드화하고 유통하고 글로벌 시장 개척 문제인데 해수부에서 나서서 가공과 유통과 그룹 브랜드화 이것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주철현 위원 이것은 그냥 현재처럼 판매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는 사람들이 안 먹잖아요. 가공해서 손쉽게 먹을 수 있게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협중앙회와 관련해서 선거제도, 저도 직선제 필요하고 연임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책임경영이 가능하니까. 아시겠지만 문제는 지금 현재대로는 91명의 조합장들이 떠나는, 이 많은 조합장들이 선거하고 떠나요, 임기 다 돼서. 그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중앙회장 선거가 내년 2월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제도를 고쳐서 직선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농협도 지금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직선제 주장하고 있고 지난번도 해수부는 직선제에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추진을 해 주시고. 직선제 관련해서 선거비용이 일반 조합장 선거할 때 같이 하게 되면 추가 비용이 하나도 안 듭니다, 같이 하면 되니까요.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이야기했는데 이 법에 따라서 해양레저관광협회가 근래 창립이 돼서 등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발족을 했는데, 진흥법은 그야말로 진흥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초기 단계로 협회가 법정 특수법인으로 출범을 했는데 해수부의 집중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해양레저관광이 새롭게 진흥이 되고 책임지고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관심 갖고 적극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주철현 위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여수해만의 D-1 정박지 해상환적 잘 아실 거예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주철현 위원 이게 40년간 무사고 운영을 해 왔는데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 사고로 갑자기 벼락을 맞았어요,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운행이 재개가 안 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용역 계약상 문제가 없고 1000억 이상의 지역 경제

적 유발 효과도 있고 또 관련 업체들이 다 원하고 있거든요. 특히 요즘처럼 중동 사태 생기게 되면 러시아산 원유 오게 되면 환적해야 됩니다. 지금 필요한데 말라카 해협 거기까지 가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좀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따져 보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환 장관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환 위원 왜 그러십니까?

(웃음소리)

후보자님, 간단간단하게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 관련 로드맵 빨리 확정해서 만들어서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해양수산법안소위에서 지속가능한 연안어업 특별법이 상정됐다가 여러 논의 끝에 보류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속가능한 어업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산업법상의 규제를 어떻게 어떻게 정리해 나가겠다라는 그 계획이 같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 빨리해서 국회에 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조승환 위원 그다음에 지금 상생활인쿠폰 예산이 153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1530억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수산물 소비가 안 될 때 우리 어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판매가 안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는 제도인데 이게 사실 유통업자 배만 불린다 그리고—농어민 같이 하겠습니다—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검증이 안 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여야를 통해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돈 풀기 추경을 할 때 이게 추경에 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습시다만 지금 면세유 포함해서 해상유가 육상유에 비해서 3배 이상 비싸다는 우리 해운업계의 이야기들을 경청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 지금 실제로 싱가포르까지 기름을 실으러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B2B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 확실하게 좀 챙겨 봐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겠지만 북극항로 시범운항 항로에 대한 민간기금 부분에 대한 자료 좀 보내 주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서 정부 예산을 가지고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물론 정부가 배를 사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지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지금 북극 예산이다라고 한 게 5499억인데 여기 진해시장 예산 빼고 나면, 제2쇄빙선 건조 예산 빼고 나면 200이 채 안 돼요. 이래 가지고서 북극항로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제가 질타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북극항로가 전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물동량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인도양 물동량까지 북극항로로 갈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황 후보자는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적합한 화물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승환 위원 인도양까지도? 인도양까지 화물도 대체 항로가 아니고 그 인도양 화물이 부산을 거쳐서 북극항로로 갈 것이다……

1분만 더 주십시오.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니까 이것은 북극항로와 관련된 선박, 산업 생태계 육성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면서 이걸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다음 북극항로 특별법이 만들어집니다만 사실 이 부분도 너무 상업적으로 우리가 무슨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자꾸 전 전채수 장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주변 국가와 해양 환경과 이런 부분들하고 다 같이 가 쥐야 되는 북극항로 특별법이 아니라 북극해 특별법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좀 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항만산업, 항만크레인입니다. 우리가 2-6단계 서컨에 국산 크레인을 넣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돈이 올라 가지고서 지금 못 하겠다라는 입장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항만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전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후보자님, 앞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북극항로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8~9월에 시범운항을 하겠다고 아까 보고하셨는데요. 결국은 이거 해수부가 하는 게 아니라 선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관심 갖고 있는 선사가 몇 개나 됩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몇 군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종덕 위원 몇 군데가 있다고 들었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전종덕 위원 일회성 시범사업으로 경제성 확보나 이런 것이 좀 불확실성이 있고 또 이게 극지 운항에 따른 위험이나 기술 확보 등 이런 것들을 다 선사가 부담해야 되는 조건에서 선사가 쉽게 이것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또 해수부에서는 항만시설 부담료 지원 같은 것 이런 대책을 내놓고 있을 텐데요. 정말 선사들이 적극 참여해서 이런 리스크라는 것들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뭔가 더 획기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결국은 이제 계획이라는 것이 현실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북극항로 대부분 영해가 러시아 영해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혹시 그러면 우리 해수부에서는 북극항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러시아하고 협의나 회의나 이런 것들을 추진해 본 적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외교부를 통해서 지금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해 봤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전종덕 위원 회의를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지금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부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어서 자세히는 말씀을……

○전종덕 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했지만 러시아의 영해의 협조·협력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를 하고 있는 조건에서 한국만 이렇게 해 줄 리도 없고 또 남북 관계가 경색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보냈던 북러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봤을 때 우리만 이렇게 혜택을 줄 거냐 이런 것들도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도 적극적으로 좀 잘 강구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앞에서도 많이 지적했지만 마음만큼 이것이 핑크빛으로 사업이 추진될 거냐라는 타당성이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식시키려면 해수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세계 1위 해운사인 스위스의 MSC, 2위인 덴마크 머스크, 3위인 프랑스의 CMA CGM이 북극항로 사업을 포기했지요? 그런 이야기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해운서약을 통해서 상업적 운항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나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 경제적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1·2·3위도 북극항로 사업을 포기할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대외경제 상황이라든지, 지금 준비 정도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고려해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냐, 우리는 그만큼 준비하고 있느냐 이에 대해서 정말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분석해서 잘 준비해 주시고요.

후보자님, HMM 부산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해양수도권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종덕 위원 그것을 육상노조가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전종덕 위원 반대 이유는 세 가지더라고요. 화주나 선박금융기관이 90% 이상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회사 외부자문기관에서 의뢰해서 타당성결과조사를 했는데 부적합하다고 나왔고 또 HMM 육상 직원의 90%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시 핵심인력 이탈이 예상된다 이렇게 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고 있는데, 지금 혹시 해수부 차원에서는 육상노조의 이런 반대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육상노조가 얘기하는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사 간에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협의를 계속 보고 있는 중이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지원하고자 합니다.

○전종덕 위원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전하려면 육상노조하고 슬기로운 해법을 꼭 찾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금주 위원 후보자님, 3월 26일 해상풍력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정부가 입지를 발굴하고 민관협의회를 통해 어업인 참여와 수용성을 확보하겠다는 게 핵심인데 문제는 말이지요,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기존 해상풍력사업들은 이러한 절차의 적용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된 어민들이 걱정이 많고 우려가 큰 상황인데, 특히 우리 지역 고흥과 같은 갈등 지역에서는 해상풍력 추진과정에서 특별법 시행만으로 현장 갈등 해소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어업권 침해랄지, 조업구역 축소, 생계 위협, 소통 부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후보자님, 장관 취임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한 해수부 차원의 대응이랄지 또 어찌 됐든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문금주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 민관협회의 어업인 대표에 대한 참여권 보장이랄지 피해 어민들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등 해수부가 어민들을 대변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관련 부처 기후에너지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요구를 말씀드립니다. 요청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유념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리고 후보자님, 지금 민물장어 양식업계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내용 알고 계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따로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문금주 위원 한번 보고를 받아 보श्य. 제가 몇 차례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어려운 이유가 일단 양식업계가 많이 늘어서 공급이 늘어난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문제 그리고 요즘 환율이 오르면서 사룻값도 치솟고 있는 문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들을 지난번에 제가 해수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한번 보고를 받아 보시고 전반적인 대책들을 강구해서 예를 들면, 여기 서면질의도 제가 보니까 공급 과잉에 대해서도 소비처 확대를 위해서 교육부·국방부 등 집단 급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씀도 주셨고 여러 가지 인공종자 개발 연구 등이랄지 ‘친환경 양식장 구축 지원,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 서면답변서에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보고를 받아 보시고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위원장 어기구 시간 잘 맞춰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태 위원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제가 입장을 한 번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첫 오염수 방류 결정을 할 때 그때 해사안전국장 하였고 그 이후에 준비 과정에서도 기조실장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해수부가 계속 안전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것 아닙니까? 맞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제가 사실 그 부분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박준태 위원** 아니 본인이 하신 업무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기억이 안 나시면 어떡합니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2021년도에 처음 방류 결정을 할 때 그때 해사안전국장 하였고 그 이후에 그게 안전하다라는 논쟁이 있을 때 안전하다는 입장 견지하고 그때 기조실장 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해수부 입장도 공고하게 무해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후보자 입장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준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준태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당시에 이게 핵폐기물 수준이다 했던 이재명 대통령 그다음에 불가역적인 손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주장했던 현 해양수산비서관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데이터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할 수도 있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본인은 안전하다고 업무를 해 놓고서 그 당시에 그런 괴담에 가까운 얘기를 하신 분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해가 간다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리고 적어도 지금 큰 문제가 없다고 안전하다고 확인이 됐으면 지금이라도 그 당시의 주장은 잘못된 거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다 어떤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근거도 없이 얘기하고, 전문성 내세운 분들 다 전문가라고 얘기하면서 아무 데이터도 없이 그냥 그렇게 주장을 하고, 정치권까지 그렇게 과학적 근거도 없이 국민들 불안감 조성해 가지고 수산업 종사자들이 그때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 주무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입장인지 자꾸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해양수산비서관은 그 당시에 오염수 관련해서 아주 괴담에 가까운 주장들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장관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 같이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러면 장관의 입장이 중요한 거고, 그분의 입장이 바뀌었는지 과거의 입장이 잘못된 걸 인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박준태 위원** 아까 제가 여쭙봤을 때도 뇌물수수 혐의로 물러난 전임 장관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받고 있으니 평가할 수 없다 그러고, 지금 대통령 모시고 일해야 되는 거고,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서도 본인과는 분명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 말씀 한마디도 못 하시면서 어떻게 소신행정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입장을 여쭙보는 겁니다.

과거 발언들 잘못됐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저희 해양수산부가 지금 해야 될 일,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태 위원** 그러니까 과거 발언이 잘못됐냐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호 위원** 후보자님, 지난해 남강댐에서 집중호우 당시 방류로 인해서 사천만 일대, 앵강만 일대가 염도가 2.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거의 파괴됐어요. 그래서 지금 어패류가 생산 단계에 있는데, 겨울철에 아주 안 좋습니다. 작황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해수부에서 해양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실태조사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피해조사 또 영향평가, 어업손실보상 제도를 다시 한번 신설하거나 제도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서천호 위원** HMM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서천호 위원** HMM.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알고 있습니다.

○**서천호 위원** 공공기관인가요, 민간기업이에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민간기업입니다.

○**서천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민간기업을 마치 정부에서 임의로 이전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합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 후보자님도 그렇고.

이전하는 문제는 주총 의결 사안이지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나서서 이전을 아주 그냥 쉽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호도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발언을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저는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께서서는 아마도 의지를 표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천호 위원** 의지를 표현해도 시장이 국가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례로 이렇게 제시가 되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 많은 위원님들께서 북극항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북극항로 TF가 지금 해수부에 구성돼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북극항로추진본부단, 본부로 돼 있습니다.

○**서천호 위원** 해수부에서, 해수부 산하로 돼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 국제협력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기술·자원 개발 문제라든지, 물류 인프라 문제라든지, 외교·과학기술정보통신·산업통상·국토교통부 여러 부처가 사실은 담당해야 될 업무입니다. 그런데 해수부 산하에 북극항로 TF 본부가 설치돼 있다? 이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은 제 생각에 격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진 의지가 명확하고 또 그 로드맵대로 성과를 내려고 그러면 해수부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에요.

아까 우리 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계 해운사 1·2·3위가 경제성을 이유로 또 환경오염이라든지 다른 이유로 해서 북극항로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경제성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문제도 지금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까지 다 해소를 하려면 범부처의 TF가 구성이 돼야 된다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추가할까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본부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한번 지켜봐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 주신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감척을 지금 부처에서 장려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어선 감척이요, 어선 감척.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서천호 위원 어선 감척을 장려를 하는데 어선 감척은 물건을 동산으로 대체하는 효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어선을 감척하는 대신에 그 보상금으로 동산을 주는 거예요. 금액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선 감척에 따라서 받은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를 해요. 이것은 사실 정말 수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다가 소급해서 지금 부과를 하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후보자님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가지고, 일부는 지금 법안도 발의되어 있고 또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해수부도 적극 나서서 이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후보자님.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송옥주 위원 마을어업의 어려움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현재 전국에 2077개의 어촌계가 있고요. 약 11만 명의 어촌계원들이 마을어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마을어업에서 생산되는 비중은 전체 어업의 2%에 불과하지만 이 마을어업은 연안 생태계 보존과 지역경제 그리고 어촌 공동체 유지 측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마을어업이 최근 들어서 빠르게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어촌계원 수도 줄어들고 있고요. 또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촌의 57%가 소멸위험 지역으로 지금 전락한 상황입니다. 생산량도 감소하고 있어서 2021년에 3만 2000t에서 2024년에는 2만 5100t으로 24%가 감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보고해서 알고 계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송옥주 위원 고수온 피해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서해안에는 주로 바지락 생산을 많이

하는데요.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송옥주 위원 2000년대 초에는 6000t 수준이었다가 최근에는 1000t 수준으로 급감해서 마을어업이 존폐의 위기에 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어업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제도 밖에 놓여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송옥주 위원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제외돼서 피해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고요. 또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보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수산업법상에서는 먼허업이라는 이유로 자원관리 체계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이 마을어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해보험이나 재해지원이나 자원관리 체계 안에 포함시키는 3건의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들었습니다.

○송옥주 위원 이 마을어업 부분들이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고 또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마을어업이 방치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장관이 되신다면 정부 차원에서 마을어업을 정책적으로 제대로 챙기시고 또 제도권으로 편입도 시키시고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시거나 또 대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 주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재해 피해 지원이나 재해보험 확대에 같이 포함시키는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정부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후보자님, 지금 이재명 정부의 CPTPP 아시지요, 메가 FTA 협정? 거기에 대한 입장을 보면 야당 입장일 때는 막 극렬히 반대했지만 지금은 입장을 선회해 가지고 가입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통상 환경이 악화되고 하다 보니까……

○이만희 위원 거기에 따른 해수부장관후보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CPTPP가 사실 가입 자체를 저희 해수부만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범정부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수산 피해가 충분히 많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후보자, 시간 3분밖에 없는데…… 앞의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죄송합니다.

○이만희 위원 거기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데 범정부적인 얘기 자꾸 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만약에 불가피하다면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이만희 위원 수산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른 대책을 세우는 범위 내에서 찬성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찬성이라는 부분까지는 좀……

○이만희 위원 알겠습니다.

후쿠시마, CPTPP 문제를 왜…… 이 가입을 하게 되면 결국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 문제가 나오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이만희 위원 아까 말씀은 보면 해산물도 안전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죽 해 오셨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우리 수산물, 저희 수산물……

○이만희 위원 아니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측정하는 부분이 해석하고 우리 수산물 부분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만희 위원 지금 후쿠시마산 해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식약처가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잘 검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안전하다는 얘기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현재까지는……

8개 현 수산물은 금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는 계속 검증을……

○이만희 위원 그러니까 그 금지 부분을, CPTPP 가입의 논의에서는 그 얘기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안전하고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지니까 수산물 수입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만희 위원 그러면 반대하시는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8개 현에서 나오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을 풀어 주려면 우리 국민들의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면 반대하는 것으로 일단 이해해도 되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만희 위원 알겠습니다.

PPT 두 번째 올려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시간 다 갔네요.

우리 어선 안전사고, 아까 후보자의 중요 업무 추진 중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해양 연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도 잘 아실 겁니다. 후보자님이 그 전에, 아마 21년도 당시에 수립하셨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 어선안전조업 기본계획,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이만희 위원 그때 당시에 목표가, 원래 5년 평균이 91명인데 이것을 30% 줄이겠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과는 지금 오히려 20%가 늘어난 거지요. 그러니까 계획하고 지금 나오는 결과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장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실질적으로 안전의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그것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다음 PPT 5번 좀 띄워 주십시오.

이 내용은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이만희 위원** 강조하시는 우리 해양주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사항이 관리 플랫폼은 제거가 됐지만 선란 1·2호에 대한 지속적인 철거 요청은 계속해 나가실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서해가 중국의 내해화가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막아 주셔야 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준병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 후보자님, 우리 수산물 유통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국수산물유통협회가 설립됐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윤준병 위원** 보고받으셨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받았습니다.

○**윤준병 위원** 앞으로 수산물 유통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가 설정하고 있는 방향이나 원칙은 어떤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유통 구조 개편에 있어서는 일단 콜드체인을 확실하게 해서 신선도를 유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통 단계를 줄여서 또 물가 안정에도 기여하는 부분이 유통 개선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 설립 취지에 부응하도록, 올해 1월에 설립됐으니까, 설립 초기니까 당초 해수부가 구상했던 내용들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잘 점검해 주시고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윤준병 위원** 외국 어선 불법 조업과 관련해서 법을 개정해서 벌칙은 강화했어요, 과징금도 높이고. 그런데 이 담보금이 사실은 다 지금 일반회계에 귀속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윤준병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해수부의 어민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수산발전기금에 편입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재정당국은 자기 수입을 지금 지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잘 협의하셔서 수산발전기금에 편입돼서 피해 어업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위원님 입장에 동감하고 재정당국과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지금 우리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소위에서 논의하

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빨리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친환경 선박과 관련된 내용도 질문이 꽤 있었는데 이것을 뒷받침하려면, 노후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하려면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윤준병 위원 그래서 친환경 선박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해양진흥공사 법정자본금 이것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우리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서 지금 법사위에 가 있는데 이것도 재정당국에서 조금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챙겨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알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저는 해양폐기물과 관련된 쓰레기 문제 이것 수거 잘하고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어떤 내용으로 해양 쓰레기라든지 이것을 수거하고 해양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해양 쓰레기는 발생부터 수거·처리까지 전 주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해양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업인들이 실질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준병 위원 그런 내용들을 하려면 관리 체계나 민관 거버넌스가 제대로 구축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특히 지자체라든지 민간기관의 참여 문제라든지 이 부분을 사실은 해수부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유인하거나 이러지를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해양 쓰레기 문제가 제대로 정리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 내수면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할게요.

내수면 산업 활성화 정책 운영 방향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생산량은 2022년 이후 계속 감소되고 있어요. 생산금액도 동시에 정체·하락되고 있고요.

그래서 내수면 어가 수도 2020년에 2872가구에서 2024년에는 2237가구로 4년 만에 약 22%가 감소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김선교 위원 그래서 제6차 내수면 어업 진흥 기본계획이 올해 연구용역을 거쳐 가지고 조만간 수립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러면 장관이 되신다면 또 하나의 형식적인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실 수 있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현장의 목소리 듣고 그렇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리고 오늘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답변과 관련해서 몇 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무원 시절에 2012년부터 3억 8000이던 예금이 공무원 퇴직 후에, 그러니까 22년 9억 9000, 2026년에는 18억으로 급증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김선교 위원** 퇴직금과 급여 등이라고 하는데 국민 눈높이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과도한 자문비·특강비도 문제인데 아무래도 다시 공직 생활을 할 생각이 없으셔서 공직 마인드를 놓고 지내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취업심사 부분에서도 규정을 알고 지킨 분들이 많은데 후보자는 법원 결정이 난 사항까지 본인이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는 법이 문제라는 자세보다 법을 준수하려는 자세가 먼저 아닙니까? 공감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김선교 위원** 또 이제 후쿠시마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담당 부서이고 장관은 최고책임자입니다. 과거 과학적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괴담과 선동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후보자가 답변을 했는데 이러한 자세로는 국민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매한 자세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김선교 위원** 전재수 장관이 해수부 이전, 관련기관 이전, 북극항로 등 부산 관련 정책을 쏟아 내놓고 불과 몇 개월 만에 장관직을 사퇴하고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행태에 대해 후보자는 아무 입장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 많은 일들을 책임지고 실무적으로 진행시켜야 하는 해수부 공직자들, 갑자기 부산으로 이사를 하고 힘겹게 적응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국정은 선거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관이 정치적 입장만 생각 말고 해수부에 애정과 신념이 있다면 후보자가 최소한 유감이라도 표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변이 좀, 안 하셨어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선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참고적으로 하시고 해양수산부 정책에 정말 공직자로서 몰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가 모두 끝났는데요.

저도 3분……

○**서삼석 위원** 안 했는데요.

○**위원장 어기구** 서삼석 위원님, 오셨습니까?

서삼석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석 위원** 안 해요.

○**위원장 어기구** 서삼석 위원님까지 포함해서 제가 좀 하겠습니다.

해도 괜찮지요, 장관님?

후보자님 오늘 모두말씀에 ‘전국 각지의 해양수산 현장을 더 많이 찾고 또 더 자주 만나고 더 깊게 듣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하시겠다 이런 각오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위원장 어기구 정말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장관님은 현장과 소통하는 장관이 되시기를 꼭 바랍니다. 저도 현장과 소통을 많이 하는데, 민원인들 말씀을 많이 듣는데 현장과 소통하다 보면 정책의 사각지대가 매우 넓다는 걸 느낄 겁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이건 아주 따끈따끈한 현장의 목소리인데요. 지난주에 당진의 신평어촌계하고 아산어촌계·평택어촌계의 어민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하시는 말씀이 서해대교 교각 있잖아요. 서해대교 교각 안쪽으로 삼교호·아산만 꼬트머리까지 이 안쪽이 항만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수심이 얕아서 배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항만구역 기능이 전혀 없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수십 년째 항만구역으로 묶어서, 여기에서 요즘 봄 되면 실뱀장어 잡이를 하시는 어민들이 있거든요. 실뱀장어가 아산호와 삼교호에서 나온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역에 많이 산대요. 이게 수십 년 동안 이런 어민 활동을 하신 거예요, 어업 활동을. 그런데 항만구역으로 지정돼 가지고 수시로 검증이 나오는 거예요, 와서 어민들 잡아서 불법조업이라고 벌금을 매기고 범법자로 만들고.

그래서 요즘에 다시 또 봄철이라 이 실뱀장어가 이제 나올 때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민 활동을 하려고 그래도 나가지를 못해요. 이재명 정부는 실용정부 아니겠습니까? 이 실뱀장어를 잡는다고 해서 누구한테도 손해를, 폐를 끼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장관님이 되시면 지금 당장 이거 잡지 못하게 하는 단속도 중단 좀 해 주시고 가능하면 이쪽 항만구역 지정을 해제시켜 달라 이런 민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항만으로 이용하기가 어렵다면 항만구역에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그러니까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아까 단속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하고, 아마 항만구역을 바로 폐지 못 하는 이유가 거기 교량공사가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어업인들이 또 피해 입지 않도록 이렇게 다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교량공사가 땃돌포에서 저쪽 내항으로 연결이 되는 조그마한 다리가 하나 놓아지는데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안쪽 얘기예요, 안쪽.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저희도 현장에 가서 보고 또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현장 소통 좀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위원장 어기구 그다음에…… 시계가 안 돌아가네, 저거 아직도 3분 남은 거지요?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해수부는 우리나라 수산과 해운·항만 분야에서 정말 중요한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잖아요. 삼면이 바다고 우리 수산인들, 어민들도 지금 기후위기 등등해서 많이 어렵고 또 북극항로 등등해 가지고 할 일이 많잖

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이 농해수위원장 하면서 느낀 건데 이 해수부 예산이 너무 적어요.

해수부 예산이 올해 얼마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올해가 7조 3566억으로……

○위원장 어기구 그러니까요. 7조, 이제 첫 7조 넘어서 다행인데……

이게 국가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1% 정도 됩니다.

○위원장 어기구 그러니까요. 1%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해양강국을 추구하고 바다를 지배한 민족이 세계를 지배한다. 그리고 우리 할 일이 많잖아요. 지금 친환경 선박 등등 위원님들 말씀하신 게 다 돈이거든, 돈. 정책이 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관님이 되시면 해수부를 너무 잘 아시니까, 곧 예산 협의가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유념해서 우리 해수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의를 좀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할 말이 있는데 하면 위원님들이 혼낼 것 같고.

(웃음소리)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아주 목소리가 크십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마치기 전에 황종우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황종우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시고 장시간에 걸쳐서 깊이 있는 질의와 귀중한 고견을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장관후보자로서 오늘 인사청문회에 임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제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 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졌으며 공직자로서의 본분과 책무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소중한 기회도 얻었습니다.

제가 해양수산부장관에 임명된다면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충고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해양수산 강국 실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기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후보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진지하고 심도 있게 황종우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황종우 후보자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경과보고서 준비와 간사 협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했다 18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어기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19.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어기구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사일정 제19항으로 추가하여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황종우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경과보고서(안)은 인사청문 활동경과와 주요 질의 답변 요지 및 종합의견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께 경과보고서의 핵심사항인 종합의견을 먼저 배부해 드렸습니다.

경과보고서의 핵심사항인 종합의견의 주요 내용을 정회 중에 양당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확인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종합의견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종합의견을 포함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경과보고서의 내용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경과보고서의 자구 수정과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에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서삼석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문대림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정희용 위원님, 서천호 위원님, 박준태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후보자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종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회 사무처 직원을 비롯한 의원실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 ○출석 위원(16인)

김선교 문금주 박준태 서삼석 서천호 송옥주 어기구 윤준병 이만희 이원택  
임미애 임호선 전종덕 정희용 조승환 주철현

#### ○출장 위원(1인)

조경태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전문위원 김성완

전문위원 이현중

#### ○출석 공직후보자

황종우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 김성범

기획조정실장 김재철

해양경찰청

청장직무대행 장인식

기획조정관 임명길

구조안전국장직무대리 유충근